

생CT
274
75319

칼빈에 있어서의 성화와 율법의 위치


The Position of the Sanctification
and Law in John Calvin

1PP2

1992
亞細亞聯合神學大學 神學大學院

組織神學專攻

權愛會

 고신대학교



1509

칼빈에 있어서의 성화와 율법의 위치

The Position of the Sanctification
and Law in John Calvin

指導 한 철 하 教授

이 論文을 亞細亞聯合神學 神學大學院
神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 年 8 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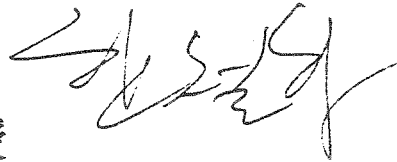
亞細亞聯合神學大學 神學大學院

組織神學專攻

權 愛 會

權愛會의 組織神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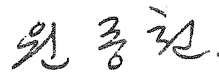
主審教授



副審教授



副審教授



亞細亞聯合神學大學 神學大學院

감사의 글

Soli Deo gloria!

한철하 교수님! 3년은 길었지만 지나고 보니 촌음이었습니다. 매시간마다 준비하 여간 우리들의 토의내용은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핵심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맴 돌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가르침을 받고 다시 이 책 저 책을 보며 무언가를 찾았다는 희열도 잠시 뿐 결국은 미숙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그것은 어설픈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한된 시간속에서 유학일정을 말씀드리자 "연구란 끝이 없는 것이다.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하시며, 장절의 내용을 정리하여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책임이었지만 자신이 없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고 배움의 길을 떠나기에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한교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돌아와 그 뜻을 이어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부심으로 지도해 주신 김기홍 교수님과 원종천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학의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 주신 조다윗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랜 병상기간 동안 희망을 주었고, 일편단심으로 공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 길로 매진하도록 기도하여 준 아내 성마리아 전도사와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 아들 반석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1992. 8.

권 애 회

목 차

I. 서 론	1
A.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 및 범위	3
II. 칼빈에 있어서의 구원과 성화	5
A. 구원의 핵심으로서의 회개와 죄사함	6
B. 회개와 죄사함과 성화의 상호관계	10
1.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	11
2. 회개와 성화의 관계	16
C. 구원에 있어서의 성화의 위치	19
III. 구원 경륜에 있어서의 율법	23
A. 칼빈에 있어서 율법의 의미	24
1. 구약 종교 형식으로서의 율법	24
2. 율법에 대한 구분	30

B. 구원에 있어서의 복음과 율법.....	33
1.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인간.....	35
2. 구원에 있어서의 복음과 율법.....	38
C. 칼빈에 있어서 율법의 용도와 위치.....	47
IV.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성화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선행.....	58
A. 구원에 있어서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위치.....	59
B. 성화의 열매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순종으로서의 선행.....	64
C. 중생후 용납되는 행위적인 의.....	68
D. 선행과 상급.....	76
V.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법.....	83
A.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84
B. 영원한 생활규범으로서의 율법.....	90
C. 성화에 있어서의 율법의 필요성.....	96
VI. 결 론.....	102
A. 요 약.....	103
B. 제 언.....	106
참고문헌.....	112
영문초록.....	117

I. 서론

A. 연구 목적

성화와 율법의 문제는 교회사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난해한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또 각 시대의 교회들이 율법주의(Nomianism)와 무율법주의(Antinomianism)의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음도 볼 수 있다.

현 한국교회도 복음과 관련하여 성화와 율법의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까지 흐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도덕수준은 타락일로로 걸어가고 있다. 사실 기독교는 날로 변창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공동체가 되고 있으며 그 구성원 상호간에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없다고 못할 것이다. 율법아래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 뿐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선행(good works)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선행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오직 믿음'(sola fide)이라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와 동시에 주어지는 이중은총(double grace)인 성화(sanctification)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또한 성화(sanctification)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죄에서 구원

할 뿐만 아니라 성화를 목적으로도 부르셨기 때문에(롬 8:30),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죄사함(remission of sins)을 받는 자는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질(quality)을 회복하게 된다.¹ 즉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날로 새롭게 하여 '율법에 대한 새로운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자발적이고 기쁘게 율법에 따라 선행을 행한다. 이 선행의 상급이 영생이며, 이는 믿음의 결국인 영생과 일치한다. 이때에 율법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저주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유일하고 결정적인 '생활규범'이 되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께 성별되어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야말로 선한 일을 달성하려는 참된 인생의 시작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나를 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되지 않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 먼저 거룩해야 함이 옳다.³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만으로 만족치 않으시고 성화되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장의 여지가 있다. 성화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아니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단계이다.

여기서 필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 그러나 '율법을 준수해야

¹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 and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ers(New York: Westminster Press, 1960), vol. III, 14, 9. 이후 Inst., 권, 장, 절로 표시한다.

² Inst., II, 7, 12-13; III, 6, 1.

³ John Calvin, The New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and Translated by R. Mackenzie(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이 주석 중에서 Commentary on Romans 12:1. 이후는 이 책에 포함된 모든 성경주석을 Comm. on 성경명 장: 절로 표시한다.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없다'는 무율법주의적 사고를 배제한다. 다만 필자는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위치와 율법의 위치를 밝히고, 부름의 목적인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신앙이 선행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는⁴ 것을 증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정도(正道)를 일깨우고자 한다. 이 '신앙과 선행'은 기독교를 받들고 있는 돌쩌귀(hinge)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악하면 우리의 구원을 확립해 주는 기초나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높여 주는 기초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화와 율법의 위치'에 대한 논문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성화와 율법의 위치'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필자는 종교개혁자요, 개혁신학의 기본 틀을 제공한 칼빈(John Calvin)의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성화와 율법의 위치를 밝히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는 칼빈이 구원을 삶의 전체적 context속에서 다루고, 또 율법을 구원사(Historia Salutis)적인 관점에서 다룬다는 사실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필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 등을 1차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차 자료로는 칼빈에 대한 신학논문과 칼빈에 대한 서적 중에서 '율법', '성화', '칭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⁴ Inst., III, 11, 1.

본 논문은 먼저 서론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된 목적과 연구방법 및 범위를 밝힌 다음, Ⅱ장에서는 '성화와 율법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전제로서 구원의 핵심과, 구원과 성화에 관련된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알아본다. 여기서 특별히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면서도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은총임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때 구원에 있어서의 성화의 위치를 밝힌다. 제 Ⅲ장에서는 구원의 경륜속에서 율법이 종교의 형식(Foren of religion)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오신 후 구원에 있어서의 복음과 율법에 대해 알아본다. 여기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faith)에 의한 것임이 다루어진다. 또한 칼빈에 있어서의 율법의 3가지 용도를 알아봄으로써 율법의 위치를 밝히게 된다.

제 Ⅳ장은 본 논문의 중심이다. 선행(good works)은 성화의 열매며,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에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위치와 선행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이러한 선행은 사실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확립된 '신앙적 의' (righteousness of faith)를 바탕으로 이 선행을 용납하여 '행위적인 의' (operum justitia : works righteousness)로서 간주한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벧전 1:9)는 말씀은 '성화의 열매'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순종으로서의 선행'의 보상인 '영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선행이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의'를 확립한 후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에 따라 실천하는 것으로 '행위적인 의' (works righteousness)이기 때문이다. 제 Ⅴ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으로서의 율법과 그 필요성에 대해 다룬다. 즉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 선행을 실천할 때, 이 때의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생활규범'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상기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인 '신앙이 선행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칼빈에 있어서의 구원과 성화

인간은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죄의 영역에 있다.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인간의 구원이 율법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그러나 죄인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킨 죄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근거로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언약(pactum salutis)에서 성립된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을 출발점으로 한다.¹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충분한 댓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한 중보자(a Mediator)없이 옛 백성들에게 은혜의 소망을 준 적이 없고 또한 스스로 화해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지도 않으셨다”고 말한다.²

우리가 구원의 순서(ordo salutis)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자를 선택하신 것같이 선택된 자를 효과적이고 합당한 때에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롬 8:30).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이러한 교리의 각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호유기적이며 구조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핵심으로서의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¹ Inst., III, 11, 10; III, 1, 1. 이 연합은 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엡 4:15) ② 접붙임이 되었고(롬 11:17) ③ 많은 형제를 받아들로서(롬 8:23) ④ 그리스도로 옷입게 되었다는 사실없이 그를 소유함이 무익하며 이는 성령의 효력을 통하여 신앙에 의해서이다.(Inst., III, 1, 1.)

² Inst., II, 6, 2.

A. 구원의 핵심으로서의 회개와 죄사함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주장하신 2가지 방식이 있다. 백성을 회개케 하시고, 또 죄의 용서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다.³ 그래서 칼빈은 복음을 요약하면 그것은 '회개'와 '죄사함'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눅 24 : 47 ; 행 5 : 31).⁴ 즉 복음의 전체 내용이 이 두 선언속에 포함되어 있다.

먼저, 회개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참된 전향(turning)이며, 이 전향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경외(fear)로부터 일어난다. 회개란 우리의 육신과 옛 사람이 죽는 것(mortification)과 영으로 새로 사는 것(vivification)으로 된다"라고 칼빈은 정의했다.⁵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내적 전향이고, 나중에 그것은 외적인 행동으로 자체를 나타내주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갱신이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주게 하기 위하여, 중생케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 기능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회개가 진정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며,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부터' 의에 복종하는 자가 되도록 놀라운 개혁을 일으켜 주는 그 무엇이 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개심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창조할 수도 없는 것이다.⁶

그러나 '회개란 자발적인 회심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변화시키셔서 불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마침내 구부러진 것으로부터 올바른 것으로

³ John Calvi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and Translated by W. J. G. McDonald(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5:31. 이후는 Comm. on 성경명 장:절로 표시한다.

⁴ Inst., III, 3, 1. 칭의와 사죄의 관계를 말하자면 후자는 전자를 얻는 수단과 근거이다(Comm. on Act:13:39.)

⁵ Inst., III, 3, 5.

⁶ Comm. on Acts 5:31.

로 만들어 주셔서 그렇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시킬 때에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회개는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끌려 지기까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날마다 행해져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릴 때에만 달성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그것은 확실히 회개의 시초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출발했을 뿐 아직 목적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 죄사함(forgiveness of sins)이란,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원죄와 부패한 본성에 의해 생긴 자범죄 등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받아들여지는 일”⁷로써 “칭의의 근거와 수단”⁸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때문에 하나님께 적대시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골 2 : 13).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베푸시는 사죄에 따라 그의 은혜로 받아들여주시기 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문 밖에 있으며 영원한 죽음에 내 팽개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호적으로 나오시는 것은 이 중보자를 떠나서는 어떠한 속죄도, 용서도, 죄책의 면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정죄 받고 있으며 거기에 짓눌려 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할 의(義)가 전무하다. 그리고 오직 당신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면죄하실 때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그의 자비 가운데 남아 있게 되고, 반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그의 죽음속에서 속죄를 구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정죄 아래 놓여 있게 된다. 이 모든 사항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상식이요, 철학

⁷ Ibid., Acts 2 : 38.

⁸ Ibid., Comm. on Acts 13 : 19; John Calvin, The New Testament Commentaries on Matthew, Mark, Luke, vol. III.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and Translated by A. W. Morrison(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이 주석 중에서 Commentary on Luke 24 : 47. 이후는 Comm. on 성경명 장 : 절로 표시한다.

이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⁹

여기서 칼빈은 실제 생활의 성화(actual holiness of life)가 값없는 의의 전가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단순히 용서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한다.¹⁰ 즉 “죄인이 복음을 통한 죄사함과 용서를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전제(the tyranny of satan)와 죄의 멍에(the yoke of sin)와 죄악의 비참한 예속(the miserable bondage of vices)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로 옮겨간다”¹¹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회개이다. 즉 “지난 생애의 잘못으로 바른 길(the right way)로 돌아섬이 없이는, 그리고 회개의 실천(the practice of repentance)에 전적인 노력을 기울림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복음의 은총(the grace of the gospel)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¹²

이러한 칼빈에 견해에 따라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복음의 은총인 죄사함이 신앙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되며, 회개도 나무의 열매와 같이 신앙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충심으로 회개하는 노력을 기울릴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인정하지 않는 한, 자기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앙을 논할 때에 이 두가지 요점을 빼놓는다면 불모와 불구가 되고 거의 낙용지물이 되고 말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회개’와 ‘죄사함’ 즉 생명의 갱신(newness of life)과 값없는 화해(reconciliation)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⁹ Comm. on Acts 13 : 19.

¹⁰ Inst., III, 3, 1.

¹¹ Ibid.

¹² Ibid.

들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¹³

둘째는, 회개와 죄사함이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회개없이 복음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회개와 죄사함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두가지 복음의 핵심의 '목적'이 드러난다. 즉 '회개' (repentance)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일체의 생각과 감정과 노력이 부패했고, 또 사악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늘나라에 들어 갈려면 중생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죄사함' (remission of sin)을 전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전 1 : 30)는 교훈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무죄함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은총이 모두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만, 신앙의 본래 목적이 「죄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죄사함'과 '회개'는 '구별'된다.¹⁴

그러나 이 두가지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획득된다. 만약 회개가 '죄의 용서'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복음이 이 두 부분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불완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의(義)로서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사실과, 중생케 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터득하지 않고는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얻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¹⁵ 그래서 또한 이 두 복음의 핵심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¹³ Ibid.

¹⁴ Inst., III, 3, 19.

¹⁵ Comm. on Acts 5 : 31.

B. 회개와 죄사함과 성화의 상호관계

구원사역의 다른 단계들과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칭의, 회개(중생), 성화의 용어들이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어려운 문제이다.¹⁶ 칼빈의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의견이 많다.¹⁷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와 「주석」 여러 곳에서 칭의(justification)와 성화(sanctification)라는 2가지 은총(double grace)을 강조했다.¹⁸ 앞서 다룬 복음의 핵심이요 내용인 '죄사함과 회개'도 두 은총의 "근거와 이유"이다.¹⁹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righteousness)와 거룩함(sanctification)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 1:30)라는 성경귀절도 두 은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칼빈은 "나는 회개를 중생과 같이 해석한다"²⁰(I interpret repentance as regeneration)라고 했다. 그러나 중생은 칭의의 양자됨과 관련되고, 회개가 '죽고 사는것'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화와 관계되어 중생이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핵심이 「새로운 자녀의 탄생」, 「양자됨」이 단 한번의 사건이요 부분적인 것이 아님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순서(ordō salutis)에 있어서 각 단계들의 상호관계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회개와 성화의 관계만을 알아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¹⁶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하)」(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pp. 660-67.

¹⁷ 니젤은 칭의와 중생, 죄사함과 성화, 생명의 갱신으로 대조시켜 중생, 성화, 생명의 갱신(회개)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는 또 칼빈이 회개를 중생, 참회, 새로와짐, 성화, 혹은 회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빌헬름 니젤,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pp. 124-25. 참조; 또한 벌코프는 칼빈이 중생을 회개와 성화를 포함한 인간 갱신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했다. 루이스 벌코프, 「신학개론」(서울: 세종문화사, 1976), p. 219.

¹⁸ Inst., III, 11, 1; III, 14, 9.

¹⁹ Comm. on Luke 24:47.

²⁰ Inst., III; 3, 9.

1.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에 의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소유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도 동시에 주신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할 때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은혜(double grace)을 받는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화해되어 우리가 하늘에서 심판주 대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모시게 된다는 것이요, 둘째는 성령에 의해 성화되어 생활의 순결과 결백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이다.²¹

이와같이 칼빈은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서는 칭의가 성화의 열매인 선행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² 선행에 대해서는 Ⅶ장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만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다. 칭의란 ‘선택받고 부름받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화해하심으로 그의 의가 전가되어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칭의와 관계속에서 성화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증보를 통하여 우리를 그에게 화해시키고,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어 의롭게 보아주시는 경우, 동시에(at the same time) 그 은총에 그의 자비를 더하여 주신다. 즉 하나님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육신을 날이 갈수록 죽어지게 하여 날마다 성화가 되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성화란 생활의 참된 순결속에서 주님

²¹ Inst., Ⅲ, 11, 1; Ⅲ, 14, 19; Comm. on Ramans 6:14.

²² Ibid. 칼빈은 칭의와 성화(회개, 중생)로 그리스도인이 신분상, 위치상, 성품상의 변화되어 우리의 삶속에 나타날 때 그 열매가 선행이고, 이는 율법의 실천이고 순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Inst., Ⅲ, 3, 1:6-10; Ⅲ, 18, 1:3:4.에서 다룬다.

개로 성별되어지는 것이며 이때 우리의 마음은 율법을 순종하도록 틀어 잡혀지게 된다.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좇고 또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의 영광만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뜻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²³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화와 칭의가 하나다. 그 분만이 의인 심판의 근거요, 우리의 성화의 보증이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힘을 믿음에 돌리게 될 때에는 성화에 의한 신령한 행위(spiritual works)까지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화와 칭의는 별개의 것이다.²⁴ 즉 아브라함같은 거룩한 족장의 생활이 영적이고 거의 천사와 같은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에 충분할 만한 행위의 공로는 될 수 없었다(롬 4:1-3). 칭의는 성화에 선행(先行)하며 성화의 '법적인(legal) 기초'인 것이다.²⁵ Heppé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 명확히 구분했다고 본다.

성화(sanctification)는 칭의(justification)가 성화의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칭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소명과 구별되는 것처럼 칭의와도 구별된다. 왜냐하면 소명(calling)은 중생의 시작인 반면, 성화는 점진적인 완성으로 가는 중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칭의는 인간밖에서 결과된 하나님의 행위이고, 이 칭의에 의해 하나님은 외적인 의를 사람들에게 배정한다. 반대로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이 부름받은 사람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생산되는 효과다. 칭의는 동일한 방법으로 나눠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단 한번의 행위로 하고, 성화는 개인이 받은 성령의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완성되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칭의

²³ Inst., III, 14, 9. 구약에서는 성화에 해당하는 개념을 성결(holiness)로 표현하고 있다. 성결은 먼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개념이다. 이로부터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를 갖는 인간과 사물, 즉 제사장, 레위인, 예루살렘, 성전 등에도 적용된다. 인간도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면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윤리적인 성품, 즉 "거룩함의 특질"이 생긴다. 이것이 성화다.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강조된다.

²⁴ Inst., III, 11, 14. 1920년대에 Newman과 Kohlbrugge 등에 의해서 sanctification이 justification과 구별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그전에는 칭의에 포함되어 사용되었다.

²⁵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하)」, p. 788.

에 있어서 인간의 관련은 순전히 피동적이며, 성화는 인간과 협력하여 된다.²⁶

이와같이 칭의와 성화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별개의 은혜임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이것들을 구별해서 그의 다양한 은혜를 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느니라」(고전 1:30) 하는 것은 실없는 말이 아니다. 구원의 획득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휟과 성령과의 역사라는 점에서 '의롭게 되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상호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거룩하게 하심을 목적으로 불렀다' (롬 8:30)라는 사실에서는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시는 자들은 본성 그대로를 내버려 두고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가'라고 누가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도 하신다' (고전 1:13)라고 대답한다.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두가지 '의'와 '성결'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접해 주시는 자들에게는 양자도 삼아주시는 영까지 동시에 부여해 주시며(롬 8:15), 그 힘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변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의 밝은 빛이 그 열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대지가 '빛에 의해 따뜻해졌다든가' '그 열 때문에 비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논하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문제도 이 비유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지 않는가? 태양은 열 때문에 땅에 생기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며 그 광선 때문에 비춰서 밝혀준다. 여기에 상호

²⁶ Heinrich Heppe, Reformed Dogmatic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n.d.), pp. 565-66.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²⁷

칼빈은 이와같이 칭의와 성화가 상호 구별되면서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벧전 1:16).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거룩함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칭의시 우리안에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義)를 기초로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거룩함을 일으킨다. 그러나 성화 자체로는 의(義)를 성취할 수 없고 또 칭의 자체는 우리의 내면적 변화를 야기시킬 수 없다.²⁸ 따라서 그 보완으로서 성령의 역사인 성화를 필요로 한다. 죄인이 하나님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서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평생도록 거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칼빈은 두 은총의 불가분성을 말하고 나아가 신앙과 선행으로까지 문제를 확대시킨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인 신앙이 성화의 열매인 선행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칭의론을 시작하면서 강조했다.²⁹ 카톨릭주의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에 대하여 ‘선행을 파하고’ ‘너무나 쉽게 의(義)로 간다’라고 비난하자, 칼빈은 “우리는 선행이 결여된 신앙이나 선행없이도 존립할 수 있는 칭의는 꿈꾸지 않는다”고 대답했다.³⁰ 그러나 칼빈은 신앙과 선행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행위가 아니고 신앙에 ‘칭의’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

우리는 의롭게 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파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칭의는 성화를 동시에, 파악하지 않고

²⁷ Inst., III, 11, 6. 이것은 Osiander에 대한 칼빈의 답변이다.

²⁸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하)」(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p. 789., 이 말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말한다. 즉 Yet you could not grasp justification without at the same time grasping sanctification(Inst., III, 16, 2).

²⁹ Inst., III, 11, 1.

³⁰ Inst., III, 16, 1.

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성결케 하시는 자가 아니면 의롭게 하시지 않는다. 이들 은혜는 영원하고 불가분해의 결속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그의 지혜로 비추어 주고 있는자들을 그는 구속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며, 의롭게 해 주신 자들을 성결케 해주시는 것이다.³¹

그래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둘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안에서 찢길 수 없는 불가분리의 것으로 결합시켰다고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으므로 두 은혜를 동시에 주셔서 서로 없어서는 못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선행없이 의롭게 되지 않으나, 아직도 선행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참다운 진리임을 알게 된다.”³²라는 칼빈의 말이 의미가 있다. 이는 성화와 의가 그리스도안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화와 칭의는 신앙의 2중 열매다.”³³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을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2. 성화와 회개의 관계

성화와 회개(repentance)는 중생한 자가 선행을 수단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단계(step)라 할 수 있다. 즉 ‘죄인’이 복음을 통한 죄사함과 용서를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와 죄의 멍에와 죄악의 비참한 예

³¹ Ibid; John Calvi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and Translated by John W. Fraser(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1:30.

³² Ibid. 본 논문 IV장 B절 Operum justitia(행위적인 의)에서 다룬다. Thus it is clear that How true it is that we are justified not without works, yet not through works.(III, 16, 2.)

³³ 요셉 리차드, 「칼빈의 영성」(서울: 기독교문화사, 1988), p. 165.

속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 이 때 죄인은 '바른 길'로 돌아섬이 없이는, 그리고 회개의 실천에 전적인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는 누구도 복음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³⁴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성화는 바로 회개의 열매"³⁵로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되는 특질'을 갖는 것이다.

회개가 '옛 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영으로 새롭게 사는 것' (mortification of our flesh and the old man and vivification of the spirit)의 두 부분으로 될 때, 이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시 34 : 14, 15, 36 : 3, 8, 27)는 것으로서의 성화라는 의미와 같다. 칼빈은 "이와같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데 그 첫단계는 우리들의 성품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회개로부터 오는 열매인 갱신(renewal)의 작업이 일어아한다."³⁶고 고백한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먼저 의와 공명과 긍휼의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 한 그와 같은 갱신의 일을 옮겨 해내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성결(holiness)로서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감정이 진실로 새로워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일어난다.³⁷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새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 사람을 버리고 세상과 육신을 포기해 버리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욕망을 결별해야 한다(엡 4 : 22-23).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자녀의 반열에 들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공통된 성품'(common nature) 죽어야 한다"³⁸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자연인, 비기독교

³⁴ Inst., III, 3, 1.

³⁵ Inst., III, 3, 16.

³⁶ Inst., III, 3, 8.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성화와 율법을 실천하는 선행에 대해서는 본 논문 IV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³⁷ Ibid.

³⁸ Inst., III, 3, 8.

인, 비양심인들, 이기주의자의 성품이 죽는다. 그리고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부합되는 생명의 갱신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엡 4:24)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증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했다.³⁹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24).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10).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통한 증생에 의해서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가운데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영생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 모두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실로 이 회복은 한순간, 하루, 또는 1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때로는 지리한 진보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선민의 욕의 부패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또 그들의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성결케 해주며, 일체의 감각을 참 순결로 갱신해 준다. 그리하여 그들이 전생애를 회개하면서 수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과, 이 인생의 싸움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해 준다.⁴⁰

즉 칼빈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모습을 가까이 닮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그

³⁹ Ibid. F. Staphylus(1512-1564)도 칼빈과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현세상태와 천상 영광의 혼돈'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이것은 마치 순결과 완전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⁴⁰ Inst., III, 3, 9.

안에서 더욱 빛나게 된다”⁴¹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경주과정을 지정해서 일생도록 달려가 골인하게 한다. 바로 이 회개의 경주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성화된다’. 즉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게 되고 율법에 따라 선행을 실천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그 공홀에 의해서 영생의 기업(the inheritance of eternal life)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그의 경륜(dispen sation)에 따라 선행을 통해서(by means of Good works) 영생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⁴²

이와같은 사실로 볼 때 성화의 내용과 회개의 내용은 너무 많은 유사성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재창조 활동으로써 성장의 여지가 있으며,⁴³ 일생동안 계속된다.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영으로 살아 「의와 거룩함」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로써 상호 일치한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화와 회개는 먼저 핵심(focus)에 있어 다르다. 즉 성화는 ‘거룩함(holiness)’ 자체이나 회개는 ‘하나님께로의 전향’(turning to God)이다.⁴³ 동기면에서도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진지한 두려움’(the true and earnest fear of God)⁴⁴이나 성화는 ‘성령의 내주함’(indwelling of the spirit)이다.⁴⁵ 결국 성화는 ‘회개의 열매’⁴⁶요, 회개는 성화의 ‘근거와 이유’⁴⁷로서 구별할 수

⁴¹ Ibid.

⁴² Inst., III, 14, 21. 선행과 성화, 율법의 관계는 IV장 B절,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로서의 영생은 IV장 D절, a priori and a posteriori 관계는 IV장 C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⁴³ Inst., III, 3, 9.

⁴⁴ Inst., III, 3, 5.

⁴⁵ Inst., III, 14, 9.

⁴⁶ Inst., III, 3, 16.

⁴⁷ Comm. on Luke 24 : 47.

있다. 그러나 회개와 성화는 죄사함과 칭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활동으로써 상호불가분의 관계속에서 선행을 통해 하늘나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영생의 단계이다.

C. 구원에 있어서의 성화의 위치

하나님께서서는 예정된 자를 선택하신 것같이 선택된 사람들을 효과적이고 합당한 때에 믿도록 부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 구원에 이루도록 하셨다(롬 8:30).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의 단계인 회개, 칭의, 성화의 교리의 각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콘텍스트(context)에서 보기 때문에 상호구조적이며 유기적인 관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이미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성화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위치인가를 보자. 이미 충분한 언급이 되었지만 성화란 '성령의 자비로우시고 끊임없는 역사로 죄의 부패에서 죄인의 전 성품을 정결케 하여 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⁴⁸ 즉 성령의 감화를 통해 윤리적인 품성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Heppe의 성화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자.

성화란 선택되고 부름받은 '죄인'이 의롭게 되었을 때 성화는 칭의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다. 이때 신자들이 선행(good work)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된다. 성화란 성령에 의해 타고난 악으로부터 신자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점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상의 행위이다.⁴⁹

⁴⁸ 루이스 벌코프, 「신학개론」(서울: 세종문화사, 1976), p. 246.

⁴⁹ Heppe, p. 565.

이와같이 성화는 칭의와 함께 하나님의 이중은총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화의 목적이다. 신자가 거룩하게 되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임으로 그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은 죄인을 믿음으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이를 기초로하여 성령으로 성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성화는 불완전한 것이다. 즉 칼빈은 “우리가 성화되어 성령의 인도아래 주의 법도를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여전히 ‘불완전한 것의 흔적’(traces of imperfection)을 남겨 두어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될 기회를 주는 것이다”⁵⁰라고 했다. 신자들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의 불순이 얼마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성결을 위해 주어져서 우리를 정결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케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순종은 정욕을 누르고 복종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의 성결로 정화되지만 죽을 육체의 덩어리로 싸여 있는 한, 많은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⁵¹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완전을 이룰 수 없고 꾸준히 정진해야 하며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한다. 성화의 완성은 육신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나 완성된다(고전 1:8).

그러나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의 은혜로 심령이 변화되어 그 열매로서 선행(good works)을 실천한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결과 보상(reward)으로서 영생(eternal life)을 얻는다. 즉 하나님은 ‘선행을 통하

⁵⁰ Inst., III, 14, 9.

⁵¹ Inst., III, 3, 14: 11. 니젤은 칼빈이 성화의 완전이 마지막 심판날에 비로서 신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고 한다. 즉 죽음의 날에 이르러서도 죄의 육신은 상실되나 완전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John Calvin, Corpus Reformation, 5. 165ff.). 니젤, p. 127. 또한 Comm. on Acts 15:10과 Zacharis Ursinus, Th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trs. G. W. Williard(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852), pp. 608-09.에서는 성령은 실행자로서 완전하나 인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이단자 Coelestius는 지상생애 중 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III, 17, 15).

여' 신자를 영생으로 인도한다.⁵²

주님이 행함이 있기 전에 값없이 주신 것으로서 행함(works)을 보상하신다고 말했다 해서 우리를 기만하거나 회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위 약속된 열매와 선물을 명상도록 하고, 또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복스러운 소망(hope)을 찾도록 재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신다. 이때 약속의 열매(영생)을 행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당연하며 행함은 그 열매의 성숙을 이루게 한다.⁵³

물론 성화의 열매인 선행(good work)이 구원의 공적(merit)을 쌓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구원은 행함과 관계없이(마 20:1-15)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칼빈은 선행을 통해서 영생의 기업, 즉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고 했다.⁵⁴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의 성화의 위치가 들어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의 거룩함(holiness of life)을 참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 '천국 영광의 나타남으로 인도되는 길'로 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성화시킨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기 때문이다⁵⁵(롬 8:30)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서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 율법에 순종하여 선행을 실천하는 '생활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⁵⁶ 즉 성화가 하늘나라로

⁵² Inst., III, 14, 21; III, 18, 1: 3; 4. 논 논문 제IV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⁵³ Inst., III, 18, 3.

⁵⁴ Inst., III, 14, 21.

⁵⁵ Inst., III, 18, 4.

⁵⁶ Inst., III, 14, 9.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단계로서 필요한 것이다.

Ⅲ. 구원 경륜에 있어서의 율법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핵심이 회개와 죄사함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상호 구조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았다. 특히 성화와 칭의는 '태양의 열과 빛' 같은 관계에 있으며 또 성화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로서가 아니라 그 열매인 선행을 통하여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단계임을 알았다. 그러나 의롭게 되는 문제로서의 구원은 율법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구원경륜에 있어서의 율법의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 본다.

특히 칼빈은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불리운다. 물론 칼빈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에 대해 밤낮으로 말하는 사람의 행복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의 영광을 찬양했다. 이러한 칼빈이 성경적인 율법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자식과 함께 가장 먼저 율법을 다뤘던 것이다.¹

칼빈은 먼저 율법을 구원사(Salutis historia)적인 넓은 의미로서 단순한 계명이 아닌 종교의 형식으로 보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때때로 복음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한다(롬 3:21ff; 갈 3:10ff; 빌 3:9). 이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복음을 통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이러한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율

¹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36), translated and annotated by Ford Lewis Battles(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I, A-C.

법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일 때 불신자에게 뿐만아니라 그리스도 인에게도 계속적인 용도가 있음을 주장한다.

A. 칼빈에 있어서의 율법의 의미

1. 구약 종교 형식으로서의 율법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본다. 즉 "율법이란 사람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십계명 뿐만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 준 종교형식(form of Religion)²"이라고 정의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율법이란 단어는 의로운 생활법칙, 곧 십계명 뿐만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신 언약과 모세의 가르침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³ 즉 "율법의 전체교리가 참종교와 신앙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이와같이 율법이란 구체적인 계율을 가르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뜻으로 유대교 하나님 신앙의 종교형식을 말한다. 원래 종교란 계약과 예배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율법을 종교형식으로 봄으로써 율법도 계약과 예배를 포함시킨다.⁵ 즉 율법은

² Inst., II, 7, 1.

³ John Calvin, The Old Testament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I. Translated and Collated by the Rev. Janes Aderson(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19:7.

⁴ Ibid.

⁵ Inst., II, 11, 4. 여기서 이들 의식은 옛날 계약의 단지 우발적인 특성에 불과하거나 추가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 종속물이라고 하나, 그것들이 '계약을 이행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례전(Sacraments)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언약이란 이름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이란 말은 의식과 제사들을 포함한 언약을 엄숙히 인식하는 방식을 뜻한다; 니젤, pp. 88-89.에서 니젤은 율법을 이와같이 언약으로서 또한편으로는 예배법으로 칼빈은 본다고 했다.

언약법임과 동시에 또한 예배법이다.

a. 언약법으로서의 율법

먼저 칼빈은 율법을 근본적으로는 언약(covenant)으로서 이해한다.⁶ 율법이 인간 원래의 상태(status integritatis)에서의 삶 뿐만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구하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로 하였을 지라도 같은 뜻이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값없는 은혜로 양자삼는 언약'(the covenant of the free adoption)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때때로 율법을 '복음과 대립되는 좁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은 '율법을 행하므로 의를 얻는다'고 공상하는 거짓 스승들과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류를 반박해야 했다.⁷

여기서 칼빈이 언급하는 율법은 다음에 다룰 복음과 대조적인 개념도 아니요, 단순히 선하게 살라는 계명의 총체도 아니다.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주셨다.

⁶ 언약(베리트 : covenant; testament)은 두사람 이상 사이에서 이뤄지는 조약 또는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은 두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 서서 서로가 지켜야할 의무와 조건들을 자발적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맺어지는 약장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를 부과하고, 열등한 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약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이 「의식」을 통해서 약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계약관계에 있는 쌍방이 약정에 근거하여 어떤 약속을 이루기로 맹세한다. 그러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약정의 성격을 띤 엄연한 계약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으며, 그가 자신의 요구를 설정하시며 친히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관계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맺어지기 훨씬 이전 창세부터 존재했다.(벨코프, p. 487).

⁷ Inst., II, 7, 2.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율법수여자인 동시에, 자신에게 의존하는 피조물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 내셨다. 창조주인 그는 인간과 법적인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피조성에 암시된 모든 요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순종할 경우에는 영생을 누린다는 약속을 보장했다(창 2 : 15 -17).⁸ 이 생명의 약속은 최고의 상태에까지 발전된 영구적인 복락과 영광이다. 사실 상 아담은 거룩하고 불멸하는 존재였으나, 그는 아직 실수하고 범죄할 가능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아담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제약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행위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아담을 제약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그의 삶을 최고의 완전성에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약속이었다.⁹

이러한 행위언약의 원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로서 성경에 여러번 반복된다(레위 18 : 5; 겔 20 : 11, 13, 20; 눅 10 : 28; 롬 10 : 5; 갈 3 : 12). 이 개념은 바로 바울이 복음과 대조적으로 사용한 율법의 개념이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후에 아무도 이 조건에 순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전 7 : 20; 왕상 8 : 46).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은혜언약을 체결하셨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구속주와 아버지로 나타나신다. 타락한 인간에게 중재자인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당연히 택함 받은 자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은혜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창 17 : 17),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도 나타남은 말하고 있다. 칼빈은 “은혜의 언약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¹⁰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 이 자녀

⁸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상)」(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p. 425.

⁹ Ibid., pp. 427-30.

¹⁰ Comm. on Ramans 8 : 15.

삼으심(adoption)은 그들의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한 것이다.¹¹ 또한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전에 맺은 계약에 의거한 것이다.¹² “왜냐하면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부여된 약속을 제거하는 율법의 수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세는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이 조상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본다. 그는 율법을 갱신하기 위해서 파송된 것처럼 되어 있다.”¹³

이와같이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불러 일으키시고, 모세의 손을 통해 계약에 인을 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계약의 하나님의 예언자요, 자비와 성실을 알려주는 자였다. 이러한 계약법으로서의 의미는 기독교 강요 2권 7장의 머리글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율법을 준 목적은 구약백성을 죄에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하여 그의 재림때까지 양육해 주는데 있다.¹⁴ 율법은 그가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로 부터 떼어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신을 그가 율 때까지 보존해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도록 오시지 않더라도 그들이 약해지지 않고, 그에 대한 소망이 불타도록 하고 기대를 강화시켜 준다.¹⁵

이러한 하나님의 계약은 인간이 아무리 불순하게 행동해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또 자기를 위해 요구하신다. 이 요구가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우리의 뜻을 전부 포기하

¹¹ 니젤,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p. 88.에서 재인용(John Calvin, *Corpus Reformation*, 28, 549).

¹² 니젤, *Ibid.*, p. 88에서 재인용.(John Calvin, 48, 688)

¹³ *Inst.*, II, 7, 1.

¹⁴ *Ibid.*

¹⁵ *Ibid.*

고 그에게 복종해 그의 인도에 따라 살것을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던 것이다.”¹⁶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관계에 들어 오시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와 구주가 되기로 약속하셨다. 또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은 한사람으로써 우리 앞에 계신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율법을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의 백성에게 주신 계약법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b. 예배법으로서의 율법

칼빈은 율법이 계약법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예배법으로 이해한다. “우리의 생활이 덕으로 완벽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증히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의(義)의 중요한 부분이 그의 전능과 영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불경스럽게 모독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⁷

이렇기 때문에 율법은 또한 예배의 의례를 제정한다. 즉 율법이 언약법임과 동시에 예배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는 행위로 하고 하나는 의식으로 한다.¹⁸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의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겠다.

칼빈은 예배가 모든 의(義)의 기초며 이를 위해 의식도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율법을 두부분으로 나누었다. 율법 가운데는 의(義)의 전체를

¹⁶ 니젤, p. 87에서 재인용(John Calvin, Corpus Reformation, 28, 513).

¹⁷ Inst., III, 3, 7.

¹⁸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서울 : 삼광인쇄사, 1984), p. 112.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엄을 '예배'하는데 관한 종교상 의무를 그 첫부분에 돌렸다.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사랑'에 관한 의무를 그 둘째 부분에 돌린것이다. 분명히 의의 기초는 하나님 예배이다. 그러므로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의 모든 나머지 부분은 파괴되어 파편들처럼 산산조각이 나게 마련이다. 만약 불경한 신성모독을 하여 한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어떻게 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¹⁹ 진정 종교는 의(義)의 주요부분 일뿐아니라 그 진수로서 전체에 생기와 활력을 준다. 즉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사람들은 공평도 애정도 보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의 시작이요, 기초라고 부른것이다. 예배가 제거될 때 아무리 인간이 상호간에 공평과 절도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텅비고 쓸데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의의 원천이요 영혼이라고 부른다. ²⁰

도덕법이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를 경외하지 않을수 없도록 할 때, 우리는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의식들'은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는 길이다.

칼빈은 "요컨대 율법에 나타난 전체 예배(the whole cultus of the law)를 그 자체로서 진리에 상응하는 그림자와 상징이 아니라면 얼마나 우스꽝스런 노릇인가"²¹라고 묻는다. 유대들은 망령된 종교의식에 빠진 이방들의 예배행위와 달리 '신령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의 내용(상징들)이 그 목적과 분리되면 허망하고 정죄받을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모형(Type)은 신령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영적인 예배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²² 즉 율법은 신령한 목적을 가진 영적인 예배법인 것이다.

¹⁹ Inst., II, 8, 11.

²⁰ Ibid.

²¹ Ibid.

²² Ibid.

이와같이 전체 종교로서의 율법은 우리의 수령같은 인생에게 '하나의 길'을 보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율법을 주심으로 그를 예배하시게 하시고 또 계명의 성취를 약속하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아버지로서 구세주로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 예배하는 길'이 있는 것이다.

2. 율법에 대한 구분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로서의 율법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칼빈은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시민법)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먼저 통속적으로 행해지는 구분에 주의하자. 그것은 모세에 의하여 공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적 율법', '의식적 율법', '재판적 율법'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부분을 검토하여 어느 것이 우리와 관계가 되며 어느 것이 관계가 안되는지를 살펴 보자. 동시에 누구나 '재판적 율법'과 '의식적 율법'이 '도덕적 율법'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소한 문제에 얽매어져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구분을 가르쳤던 옛사람들은 다른 두 부분이 '도덕적 율법'에 관계된다 함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둘은 변경되고 폐기되는데도, 도덕법은 조금도 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둘을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도덕적'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첫째 부분을 일컬었으니, 즉 이것 없이는 행위의 참 성결도 없으며 옳게 사는 아무런 불변의 규범도 없는 것이다.²³

a.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율법(도덕법)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신구약에 나타난 '명령과 금령들'이다. 이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어졌다. 칼빈은 이 율법

²³ Inst., IV, 20, 14. 이것은 칼빈이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Melancthon의 Loci communes (1521), ed, Engelland, p. 46. 참고한 것이다.

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의(義)며,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의의 일부'임을 인정한다.²⁴ 그래서 칼빈은 "만약 율법에서 우리가 의의 완전함을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법을 완전하게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라는 말이 된다"고 했다.²⁵

도덕적인 율법은 두 가지 주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순수한 신앙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또 하나는 사람들을 성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단적으로 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의지(God's will)에 일치시키고자 원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규정된 참되고도 영원한 의의 규범이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지(eternal and unchangeable will)이기 때문이다.²⁶

이와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데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는 의지다. 아담은 이를 불순종 했고, 하나님은 이를 기준하여 모든 사람을 심판 하신다. 그것은 벌써 계시되었으므로 사람이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성취시킨 것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도가 순종하게 될 그러한 의지다.²⁷ 그 의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의'의 기준인데²⁸ 사람은 양심으로 알 수 있었으나 죄로 인하여 기록된 율법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시 구체적인 행위중에서 알려줄 성격이 된 것이다.

b.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상징으로서의 율법(의식법)

²⁴ Inst., III, 17, 7; III, 18, 10.

²⁵ Inst., II, 7, 3.

²⁶ Inst., IV, 20, 15.

²⁷ Inst., II, 7, 12; Comm on Matthew 5:21; Comm on Romans 2:13.

²⁸ Inst., III, 17, 7.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상징으로서의 율법인 의식법을 그것이 끊어질 때 오는 복음의 충분하고 분명한 계시의 모형, 또는 예표로 보고 있다.²⁹

의식적인 율법은 유대인의 초보교육(tutelage)이며(갈 3:23), 이 백성의 어린 시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고 그리하여 때가 차기에 이름을(갈 4:4) 하나님은 선히 여기셨다. 때가 차면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를 세상에 충분히 나타내시고 옛날에는 상징으로서 나타났던 내용 자체를 드러나게 하시었다.³⁰

이와같이 의식법은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은혜로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유대 백성을 선택했음을 말했다(출 19:6). 이것은 짐승의 피보다 더 큰 화목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히 9:12ff).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의식법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다.³¹ 이와같은 의식법은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히 10:1). 의식법에서 정해진 예배의식이 지시하는 진리와 실제(reality)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의 효과와 능력은 그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이외에 칼빈은 재판법(시민법)을 말하는데 이 재판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그 용도는 폐지되고 그 공평성과 정신만 유효하다.

그런데 재판적인 율법이 정치적인 질서로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들이 공평과 의의 확실한 규범을 가르침 받고, 결백하고 평온하게 살기 위함이었다. 재판적 율법의 형식도 사랑의 계명 자체와는 구별되는 어떤 것을 가진다. 그러므로 경건을 안전하게 손상시키지 않고 의식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재판 규정이 없어져도 사랑의 의무와 계명은 변함 없이 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진리

²⁹ Inst., II, 7, 1.

³⁰ Inst., IV, 20, 15.

³¹ Inst., II, 7, 1.

라면 각 민족에게는 분명히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자유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그 법률들은 항구적인 사랑의 규범에 입각하여 깊이 고려된 것으로서 형식은 달라도 '근거'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³²

이와같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율법을 표현했다. 즉 종교의 형식(Ⅱ, 7, 1)으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과 예배법으로(Ⅱ, 7, 1, 2; Ⅱ, 11, 4) 또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준 도덕법의 특별 계시로서 십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요약(Ⅱ, 8)과 시민법, 의식법(Ⅳ, 20, 14-16)이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은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칼빈의 율법에 대한 견해에서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적인 예배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율법을 통하여 그의 위엄에 직면해서 파악한다. 또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궁핍을 실감하며 깨어지고 낮아져서 자신을 부정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중보자를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³³ 것이다.

B. 구원에 있어서의 복음과 율법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할 때 '행위공적'과 '의의 값없는 전가'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만 사용한 것은 율법을 잘 알지 못한 소치이다. "복음은 율법의 약속을 모두 확립하고 추인하여 그림자에 실체를 결합한 것"³⁴이라는 개념에서는 복음이 율법을 이은

³² Inst., Ⅳ, 20, 15.

³³ Inst., Ⅱ, 8, 1.

³⁴ Inst., Ⅱ, 9, 4.

것이다. 즉 복음은 율법이 모형으로서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준 것이다.

이런 넓은 뜻에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옛 족장들에게 주었던 자비와 아버지로서의 은혜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의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은 "명백한 계시"³⁵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구원에 있어서의 율법과 복음'은 바울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 (the righteousness of law and Gospel)를 대조시킨 점에서 이다³⁶(롬 3 : 21ff; 갈 3 : 10ff; 빌 3 : 9). 여기서 복음은 "율법 가운데 나타난 죄를 값없이 속죄해 준다는 약속"³⁷으로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준수를 요구하며, 우리가 그 전체를 완전히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한 살 소망을 허용치 않는다. 율법은 '만약 누구든지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 선포하고 있다. 율법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부터이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나, 타락한 인간자신은 무력하고 완전히 부패되고 거짓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때까지, 율법의 요구와 위협을 늦추지 않는다. 인

³⁵ Ibid. 율법과 복음사이에는 일치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나 모순은 없다(Inst., II, 10-11장). 특히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의해 알려졌으나 복음으로서는 더욱 분명히 나타나신 것이다(벧전 1:10; 히 1:1-2). 칼빈은 "율법이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으로 훨씬 더 많은 빛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즉 구약백성은 약간밖에 선지자들이 증거한 은혜를 맛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한층더 풍부한 열매를 친히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림자처럼 몽롱하게 기대할 수 밖에 없었던 모든 신비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었다.

³⁶ Ibid.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Comm. on Romans 8:15을 참조할 것. Karl Barth는 율법이 복음안에 있고 복음에서 나오고 복음으로 지향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복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했다. 칼 바르트, 「은총의 선택 및 복음과 율법」(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90), p. 85. 참조.

³⁷ Inst., II, 9, 2.

간이 이러한 수치와 낙담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면 남은 것이 라곤 항복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다. 그때서야 비로서 심판주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며 관대하신 아버지로 나타내신다.³⁸

이와같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행위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행함으로 인한 일체의 도움을 박탈당하고 의(義)를 성취할 수 없게 된것이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총을 베푸셨다. 타락한 인간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이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복음의 의'를 얻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율법의 요구를 이룰수 없는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였으나 아담(original human)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최초상태는 뒤집어졌다. 이 죄로 인해 자신들이 갖고있는 근본적인 의(original righteousness)도 상실하였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었으며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분야 등이 온전히 더러워졌다.(창 6 : 5; 렘 7 : 9; 롬 3 : 10-19, 8 : 6-8; 시 58 : 1-5) 나아가 이 죄는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었던 것이다.(시 51 : 5; 창 5 : 3; 롬 3 : 10-18; 요 3 : 6) 이러한 근본적인 부패로 인간은 선에서 역행하는 범죄가 행해졌다. 즉 이 원죄와 부패한 본성의 죄는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역행하는 일로서(요 3 : 4)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갈 3 : 10). 따라서 죄인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⁹(엡 4 : 18; 롬 8 : 20; 롬 6 : 23).

³⁸ T. H. L. Pa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역(서울 : 생명의말씀사, 1986), pp. 91-92.

³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송중섭역(서울 : 소망사, 1990), 191-6. 이후부터는 The Westminster로 한다.

칼빈은 이런 상태에 대해 “우리의 힘은 선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저능해져서 완전성(perfection)에서 매우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선언했다.⁴⁰ 또 칼빈은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인간의 탁월성과 고귀함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고 “영생과 완전한 행복으로 옮겨가도록 되어야 했던 순서는 파괴되어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다.⁴¹ 이와같이 아담이 그 첫 상태로 부터 타락하였을 때 그의 배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전적으로 말소되고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부패가 심하여 남아있는 형상까지도 무서울 만큼 추악하게 기형이 되어 버렸다.⁴²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허물을 실감하여 그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모세를 통해 쓰여진 율법을 주셨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더 핑계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된 것이다.⁴³

만약 우리가 율법에서 의의 완전함(the perfection of righteousness)을 배우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법을 완전하게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⁴⁴ 이로서 인간은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의롭게 보여지고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준수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그로 인해 의롭게 된 자도 없으니(왕상 8 : 46; 전 : 20; 롬 3 : 20; 갈 2 : 16; 롬 3 : 10-18) 생명의 약속으로 부터 배제되어 저주로 떨어지고 만다. 약속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았다. 즉 인간은 ‘약속의 자비’로부터 오히려 자기의 비

⁴⁰ Inst., II, 8, 1.

⁴¹ Inst., II, 6, 1.

⁴² Inst., I, 15, 4.

⁴³ Inst., II, 7, 3; II, 8, 1. 쓰여진 법을 준 것은 우리의 우둔과 완고로 자연법에서 애매했던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게으름에 자극을 주어 우리의 이해와 기억에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는데 필요했다.

⁴⁴ Inst., II, 8, 4.

참을 더 잘 판단하고, 동시에 구원의 소망(the hope of salvation)이 단절됨으로써 자신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⁴⁵ 만일 우리가 율법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담과 혼돈과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율법 때문에 모두가 정죄와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갈 3:10).

결국 율법의 교훈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므로 지킬 수가 없다. 타락한 인간은 허락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율법의 계명이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우선 일체의 다른 감정과 생각을 비워버리고, 우리 심정은 일체의 욕망을 정화(淨化)해 버려야 한다. 우리의 힘은 이 한가지 점으로 총 집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자들에 비해서 주의 도(道)에 있어서 훨씬 발전했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그 목표로부터는 까마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가령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마음 중심을 기울여 경애(敬愛)한다 할지라도 그들 심정과 영혼의 대부분이 육적인 욕심으로 차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가지 못하도록 잡아 당기고, 방해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실로 그들은 많은 노력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지만 육(肉)은 한 쪽으로는 그들의 힘을 약화(弱화)시키고, 또 한 쪽으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이행한다는 것 이상 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느끼게 된다. 물론 그들은 의지하고 열망하고 노력한다. 그렇다고 요구되고 있는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율법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시도(試圖)하거나 생각에 두고 있다고 해도 모두 저주 받을 것 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善)은 당연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속아넘어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준엄(峻嚴)함이 완화되지 않는 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일체의 불완전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일을 부분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꼼꼼히 생각해 보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

⁴⁵ Inst., II, 7, 3.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의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⁴⁶

이와같이 칼빈은 우리가 육체의 무거움 짐을 지고 있는 한 '참 완전의 목표'(the goal of the true perfection)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선언한다.⁴⁷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비록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지만 사망을 향하여 무모하게 치달리는 우리를 돌이켜 주지 못한다.⁴⁸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인 것이다.

2. 구원에 있어서의 복음과 율법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통해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율법가운데 나타난 죄를 값없이 속죄해 준다는 약속"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인 의(義)를 얻을수 있다. 이 복음을 바울은 "믿음의 교환"(딤펴전 4:6)이라 했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런데 의(義)의 문제는 율법이 타락된 인간에게 저주밖에 줄 수 없고 율법 행위로서는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 '칭의'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철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 칼빈은 "신앙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식이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령'(the Holy Spirit)을

⁴⁶ Inst., III, 19, 4.

⁴⁷ Inst., II, 7, 4.

⁴⁸ Comm. on Romans 8:3; John Calvin, The Old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and the Lamentation, vol. IV, by the Rev. John Owe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31:32. 결국 율법이 약하고 무력하다고 말하는 경우 그 어느 것도 율법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들이 맹세했던 신앙을 준수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온 자행적 과오에 지나지 않는다.

통하여 우리의 심령위에 인쳐주시는 것이다”⁴⁹라고 정의했다. 이와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때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심으로 이루어진다.

a.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의’와 우리의 생활을 비교 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의 능력을 조사해 볼 때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우리는 주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생긴다. 자신의 불의로 인하여 임박한 영원한 죽음의 자각으로 공포에 빠진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원의 유일한 항구로 인정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맡기도록 한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수 없다는 자기 무능성을 깨닫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느끼므로 다른 곳에서 도움받기를 바라는 것이다.⁵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갈 3:24)라는 비유는 두가지 관점에서 율법에 아주 부합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일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도 율법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초보적인 것을 배운 후에, 저들이 성인으로서 적합한 교육을 받는 데 나아가도록 다만 일정한 단계까지 저들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로’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마치 문법선생이 ‘아이’를 열심히 가르쳐서, 그 아이를 더욱 높은 학문에 의하여 도야 및 수련할 수 있는 다른 선생의 손에 양도하는 것과 같다...그러나 여기서 이 ‘몽학선생이

⁴⁹ Inst., III, 2, 7.

⁵⁰ Inst., II, 7, 2.

시킨 훈련 혹은 교육법'은 어떤 것이었는가하고 질문할지도 모른다. 우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밝혀서 사람들에게 저들 자신의 불의함을 확신시켰다. 사람들이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자기들이 참된 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자세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저들은 의(義)를 다른 데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율법의 여러가지 약속도 똑같은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다른 한편 저들을 위협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곳을 찾도록 재촉받고 있다. 실로 율법의 약속은 저들을 자극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저들을 쉬게 하지 않았다.⁵¹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기 전에는 율법의 교도(敎導) 아래 그에게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이였는가는 명백해지는 것이다.(갈 3:24, 5:1~2) 그는 또 고백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사(後嗣)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몽학 선생 밑에 있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의의 태양이 일어나기 전에(말 4:2)는 크고 밝은 계시와 분명한 이해가 없어야 한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⁵²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유아들의 지식이 성숙할 때까지 율법의 세상적인 요소들과 의식들을 유아들의 교수요목(규칙)으로 사용하여 수련하시기를 원하셨다.(엡 4:13)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해 율법의 완전한 준수로만 성립되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 생활 사이에 차이점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분간하는 경우에 비로서 우리는 피난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⁵³ 이러한 좌절과 낭패의 상황에서 인간들이 바

⁵¹ Comm. on Galatians 3:24.

⁵² Inst., II, 11, 5.

⁵³ Inst., III, 18, 9.

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괴로운 짐을 담당하여 율법을 대신 지켜주고 율법의 준수 요구를 다 이루어줄 율법의 완성자를 고대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 귀결에 이르게 함으로써 율법은 일차적 기능과 사명을 다한 것이다. 즉 율법이 해야 할 일이란 바로 백성들을 이 절망의 상황으로 이끌어 율법의 완성자 곧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school master)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함이니라(갈 3:24)」하였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찾아주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몽학선생의 역할은 성령에 의해 조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주 중생하지는 못했더라도 만세전에 이미 선택되었고, 또 부름받고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b. 율법의 완성과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칼빈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과 목적이 되신다고 옳게 가르친다”고 했다.⁵⁴ 유대인들이 몽학선생 밑에 놓여있는 것은 ‘후사(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라는 약속이 있다(갈 3:19, 24). 또한 의식법에서 날마다 새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하던 화해가 단 한번의 제사로서 속죄를 약속했다(새 53:5; 단 9:26-27). 단 한사람 제사장(시 110:4; 히 5:6, 7:21)이, 다른 종류의 기름으로(단 9:24) 한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약속이나 의식법이 무가치하게 된다(히 4-10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만 의미가 있게 된다. 도덕법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했다. 또 그리스도는 죽은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것에 생명을 주시는 영(고후 3:6, 17)이라고도 했다. 율법의 영이신 그리스도만 율법을 생명있게 하신다. 즉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의를 전가해 주고 중생

⁵⁴ Inst., II, 7, 2.

의 영을 부여해 주시기 전에는, 의를 계명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율법에 의해 압박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식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과 완성이 되는 것이다.

사실 율법 전체가 지향하는 것이 「의의 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그 의를 성취하신 것이다.⁵⁵ 율법을 수호하신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깨뜨려 버리고 불의를 용서하시는 그런 비도덕적인 분이 아니다.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 하나님은 인간과 연합하게 되는 한사람에 의해 지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율법에 복종했다. 또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받으셔서 성취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행위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멀리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육신의 몸을 입으실 때 자신과 연합한 우리들을 위해 율법을 지키셨던 것이다. 상급을 받으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우리에게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겸손과 회개의 깊이나 진실성, 우리의 믿음의 양과 질 등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행동의 가치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가치성에 근거한 것이다.⁵⁶ 우리의 의(義)가 되셔서(고전 1:30)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완성자가 되신 것이다.⁵⁷

c. 복음에 의한 구원 : 믿음에 의한 칭의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⁵⁵ Inst., II, 8, 51.

⁵⁶ T. H. L. Paker, p. 92. (Calvin, Opera selecta, translated by Barth and Niesel. 1, 40.)

⁵⁷ Inst., III, 15, 5.

믿음'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획득하는가? 이 칭의의 문제는 기독교를 받들고 있는 중요한 들쭉거리와 같다고 칼빈은 말한다.⁵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하도록 하였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의 교훈'이다.(딤후 4:6) 그리고 의롭게 됨(칭의: justification)이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communion)할 수 있도록 영접되어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reconciliation)가 된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義)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양 옷입게 되어 하늘의 심판대 앞에 안심하고 서는 것이다"⁵⁹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의(義)로 간주되고, 그 의(義) 때문에 용납이 된자를 말한다.

불의란 하나님께 혐오스런 것이어서, 죄인은 죄인으로 있든가 또는 죄인으로 간주되는 한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의 상태가 아니고 의인(righteous man)으로 인정될 때를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죄인이 쓰러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무죄하게 고소된 사람이 공평한 재판관 앞에 소환될 때면, 그는 무죄에 따라 재판을 받고, 결국 재판관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인들의 집단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확증해 주신다."⁶⁰

칼빈은 이와같이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경우는, 실제 생

⁵⁸ Inst., III, 11, 1.

⁵⁹ Inst., III, 17, 8. 칭의, Justificatio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롬 1:17)로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원리이다.

⁶⁰ Inst., III, 11, 2.

활에서 행위로 의를 얻는 의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생활속에서 순결과 성결이 발견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보좌앞에서 의롭다함을 증명받을 가치가 있는 자는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진다. 혹은 자신의 행위의 완전함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도 의롭게 됐다고 말한다.⁶¹

이와같은 상태는 최초의 상태의 아담에게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타락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전 7:20; 왕상 8:46). 그러나 칼빈은 항상 이러한 상태를 동시에 생각하고 현상태와 비교해서 표현한다. 행위 의인의 원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자'는 행위적인 의로부터 배척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자다. 그리고 믿음으로 웃입고 하나님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나타나는 사람을 말한다.⁶²

칼빈은 여기서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참여할 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의롭다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의 사랑가운데 영접해 주시는 은혜"라고 설명한다.⁶³

칼빈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칭의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된다고 했다⁶⁴. 즉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의가 되고 유일하신 터(고전 3:10-11)인 '그리스도의 중재'

⁶¹ Ibid.

⁶² Ibid.

⁶³ Ibid.

⁶⁴ Ibid.

(the Intercession of Christ)에 의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만큼, 우리들 자신의 무죄함(innocence)을 확증해 주실 뿐만아니라 '의를 전가'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그 결과 자체로서는 의롭지 않은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의(義)로 여기게 된 것"이다.⁶⁵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개입으로만 하나님앞에서 칭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어떤 사람이 자기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옮겨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근본적으로 우리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 4장은 이 값없는 칭의가 '의의 전가' (공로없이 의를 인정)임을 잘 말하고 있다.⁶⁶ 이렇게 "구원의 실질적인 원인인 그리스도⁶⁷"의 의(義)의 전가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행 13 : 38, 39) 했다.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됨을 말하고, 의롭다함은 「사죄」이며, 율법의 행위와는 별개의 것이다. 전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다. 예로서 세리가 성전에서 내려갈 때 의롭다하심을 얻은 것(눅 18 : 4)은 그곳에서 어떤 선행(先行)을 행하여 의를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the righteous man)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⁶⁵ Inst., III, 11, 3.

⁶⁶ Inst., III, 11, 4. Comm. on Romans 4 : 6-8; 5 : 17, 19.

⁶⁷ Inst., III, 14, 17, 21. 우리의 구원의 효과적인 원인(efficient cause)은 성부 하나님이고, 실질적인 원인(material cause)은 그리스도, 매개적인 원인(instrumental cause)은 믿음이며, 결과적인 원인(final cause)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롬 3 : 26) 그 자비에 대한 찬양을 돌리는데 있다.

것이다.⁶⁸ 이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그것은 순전한 사죄를 이룬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죄와의 관계를 끝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을 심판자 대신 아버지로서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아들(adoption)이 되고, 하늘나라 후사로서의 참여자가 되고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일체가 그리스도의 공적이다. 사실, 우리의 회개와 신앙은 항상 불완전한 것이기에 언제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완전한 순종(롬 5:19)으로 죄의 댓가를 완전히 보상하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는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에 의해 전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의(Christ’s righteousness)에 의해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무죄한 자가 된다”고 했다.⁶⁹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결을 우리에게 옷입혀 주고 그것을 우리 것인양 받아주셔서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의로서 하나님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인데, 법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할 때 그가 보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구비하고서 신앙에 의해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받는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서(요일 5:6) 우리를 씻어주고 덮어주며, 우리의 더러움과 불완전한 불결들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매장된 것처럼 감추

⁶⁸ Inst., III, 11, 7.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며 사실 신앙은 그릇이고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다(Inst., III, 11, 7). 칼빈의 의인론은 바울의 피의제사,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세리,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 즉 선행까지도 그리스도의 의(義)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적인 의(works righteousness)이지만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⁶⁹ Inst., III, 14, 12.

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인의 자격으로 서게 된 것이다. 드디어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된 평강 가운데로 받아들인다.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받아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될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을 고대하게 된다(고전 15:45).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가리움을 받은 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제까지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 인해 절망과 비참속에 있던 타락한 인간이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화해되었다. 그리고 의(義)를 전가 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율법의 저주로 부터 양심의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도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율법에 따라 선행을 실천하게 된다.

C. 칼빈에 있어서 율법의 용도와 위치

칼빈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도덕법적 차원에서 율법의 3가지 기능 혹은 용도(three function and use)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칼빈은 이에 대해 II권 7장에서 다루나 제3용법에 대해서는 제 III권 제6,7장 '그리스도의 삶'속에서 다시 취급했다. 또한 Heidelberg catechism 115문에서는 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에도 심계명을 원하는가를 질문하고 대답한다. 즉 "우리가 죄진 본성을 알기위해 일생동안 점점 배울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안에서 의(義)와 죄의 용서(remission of sins)를 찾는 데 진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는 생애에 제시된 완전(perfection)에 도달할 때까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일정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며,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는 데 필요

하다”⁷⁰고 대답했다. 칼빈도 ‘죄의 거울’로 여기는 몽학 선생적 기능, 그리고 정치적 기능, 생활의 규범으로서의 3가지 기능으로 구별하였다.⁷¹ 특히 율법의 제3기능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율법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으로서 “제3용도”(third use) 혹은 중요한 용도(principal use)라고 불리운다.⁷² 물론 칼빈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⁷³ 지금까지 살펴 본 율법에 대한 의미와 복음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율법이 용도속에서 우리는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찾을 수가 있다.

1. 율법의 용도

a. 첫째 용도 : 죄를 인식케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의 기능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거울로 하여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주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의(義)을 보여주며, 동시에 인간 자신의 불의함을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인정케하고, 결국에는 정죄해준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사랑 때문에 맹목이 되고 도취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의 허약함과 불순함을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⁷⁴ 그래서 “자기의 생활을 한번 율법이란 저울에 놓고 달아본 후에는 지금의 모든 허구적인 자의(自義)를 버리게 된다. 또 그는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 전에는 자신이 순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무수한 죄악으

⁷⁰ Ursinus, p. 612. Forthy—Fourth Lord’s Day.

⁷¹ Francois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by Philip Mairet(New York: HAPER & Row Publishers: 1963), p. 198.

⁷² Donald K. McKim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 Baker House, 1984), p. 187.

⁷³ 도날드 K. 맥킴편저, 「칼빈의 신학논문」(서울: 기독교문화사, 1989), p. 204. 멜랑크론에 의해 제기되었고(in his *Loci commues*, both the second and third editions (CR. 21 406)), 1577년 발표된 루터교의 화해의 신앙고백문(Formula of concord)에도 나타나 있다.

⁷⁴ Inst., II, 7, 6.

로 가득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⁷⁵ 즉 율법이란 학교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숨어있는 정욕은 배척되고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었던 오만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다.⁷⁶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노라」(롬 7:7)고 하였으며,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롬 3:20)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아직 중생하지 못할 때에 경험하는 ‘율법의 첫번째 임무’이다.

사실 “우리의 의지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도록 기쁨이 잡힌다면 율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정욕적이고 부패되어 모두가 범법자로 판명된 이상, 율법은 더욱 명백하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며 우리의 불의함을 폭로한다.”⁷⁷ 이와같이 우리는 우리의 악과 부패 때문에 율법에 의해 공개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하도록 노력할 때,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율법에 눌러 피곤하여져서 은혜의 도움을 간구하도록 깨닫기 위함이다” 했다.⁷⁸ 즉 은총의 도움을 간구하도록 해주는 율법의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안에는 의를 행할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무가치하고 궁핍함을 실감케 하는 그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하고 인도하는 가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는 율법의 지식이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죄인이 진실로 율법의 심판때문에 정죄받는 것은 사실이지만(롬 3:

⁷⁵ Ibid.

⁷⁶ Inst., II, 7, 6.

⁷⁷ Inst., II, 7, 7.

⁷⁸ Inst., II, 7, 9. 칼빈은 어거스틴이 Hilary 쓴 서신을 인용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결국은 은총을 얻는 기능으로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19),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신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파멸케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롬 11:23).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미련한 생각을 버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에 손에 의해서 붙들려 있어야만 설 수 있고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적나라하게 빈손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안에 깊이 피안하여 그에게만 의와 공적으로서 붙잡히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⁷⁹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행동에 준엄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요, 율법 가운데서 우리에게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완전한 의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얼굴은 가난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에 대해서까지 은혜와 관용으로 충만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능으로서의 율법은, 선택되었으나 아직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를 인식케 함과 동시에 죄를 고발하고 정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케하여 '회심의 준비' (preparation conversion)가 되게 한다. 그리하여 죄를 인식한 자에게 율법은 어떠한 도움을 자신속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서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영생 (righteousness and life)을 찾도록 인도하고 강요한다(갈 3:21, 22). 율법은 죄를 인식케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칼빈에 의하면 율법의 이 첫번째 기능이 '버림받은자들' (the reprobate)에게도 행사된다는 것이다. 즉 "버림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타락후 영에 의해 속사람으로 다시 새로와지고 꽃피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의 첫 공포에 충격을 받아 절망에 빠져서 그들의 양심이 그 물결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

⁷⁹ Inst., II, 7, 8.

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⁸⁰ 이렇게 함으로써 심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들은 율법과 양심의 증거로 말미암아 공포에 질려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뿐이다.

b. 둘째 용도 : 불신자와 범죄자를 견제

이는 사회적 정치적 기강과 질서를 위한 기능이다. 칼빈은 이 용도를 죄인들을 억제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한다.

율법의 둘째 용도는 이것이다. 즉 율법의 두려운 위협을 들음으로서 강요받지 않은 한 바른 것에 대하여 아무 관심조차 없는 자들을 그 형벌의 공포로 인해 조금이라도 억제하고자 함이다.⁸¹

만약 억제되지 않은 한 제멋대로 날뛰 수밖에 없는 부패를 내부에 두어 표출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 이들은 비록 공포나 부끄럼 때문에 속에 품고 있는 것을 감히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와 순종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율법자체를 혐오하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하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명령과 존엄성을 멸시한 것에 대한 보복을 견딜 수 없어 억제한다. 그들은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이 자기의지에 반하면서도 가혹한 공포에 의해서 강요받고 있는것이다.⁸²

이러한 율법의 제2기능은 사회공익(public community)을 위해 필요하다. 즉 주님이 혼란에 대비하여 안녕복지(tranquillity)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 기능은 ‘버림받

⁸⁰ Inst., II, 7, 9.

⁸¹ Inst., II, 7, 10.

⁸² Ibid.

은자'(nay)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름받기전에 성결의 영(Spirit of sanctification)(롬 1:4)이 결핍되어 있는 동안 유익하다. 칼빈은 율법이 이들에게 굴레같다고 했다.⁸³

특히 칼빈은 선택받았으나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⁸⁴ 하나는 이미 제1기능에서 언급한 죄로 인한 비참을 인식케 하고 겸손케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같은 율법의 제2기능으로서 '일체의 불의를 추구하거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억제하기 위한 굴레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하여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즉시 중생시키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의 행위에 의해 '공포'아래 놓아두는 것이다. 이 공포는 그들에게 참 경건을 가르치기 위한 유익한 공포이다.

결국 이들은 율법의 굴레에 의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도록 얽매어 있다가 드디어 성령에 의해 중생되어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c. 세째 용도 : 신자들에게 순종할 규범을 제시

칼빈은 이 세번째 용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율법의 본래 목적에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⁸⁵ 이 용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심정속에서 살아서 다스리고 있는

⁸³ Ibid. 칼빈은 바울이 한 말(딤후전 1:9-10)이 "율법이 구속없이 날뛰며 무제한으로 횡포를 일삼는 육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굴레라는 것이다.

⁸⁴ Inst., II, 7, 11.

⁸⁵ Inst., II, 7, 12. 여기서 Luther도 칼빈과 같이 그의 「소교리문답」에서 율법에는 3가지 목적(용도)이 있다고 말한다(마틴 루터, 「소교리문답해설」 지원용역(서울: 컨콜디아사, 1981), 문 90.). 특히 Luther는 죄의 인식과 몽학선생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Marthin Luther, 「갈라디아서의 논점」[Luther's work, 26:4-12] 김기홍역, p. 3.). 이와같은 사실은 1537년 '교회회의'에서 Luther의 입장을 나타내려고 작성한 '슈말칼트신조'(Die Schmalkaldischen Artikel)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마틴루터, "슈말칼트신조" 「신앙고백서」 지원용역(서울: 컨콜디아사, 1988), p. 278.). 결국 Luther는 죄의 인식과 죄의 억제라는 율법의 용도를 강조하고 중생 후 신자에게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한편 Ursinus는 죄의 인식과 죄의 억제 기능도 중생한 후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했다(Ursinus, pp. 612-15).

‘신자들에게’ 관계된 것이다. 이제 율법이 즐라대고 요구하고 위협과 공포로 괴롭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에게만은 율법이 인간을 위한 생활규범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시 19:7-8, 119:105, 119:5)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를 전가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중생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다. 즉 중생한 자에게 이 율법이 다음과 같은 2가지 유익을 더하여 준다. 물론 이때는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감동을 받고 있다.

첫째, 율법은 신자들이 동경하는 ‘주님의 의지본성’ (the nature of Lord’s Will)을 매일 철저하게 익히고 또 그것을 이해하여 그들에게 확신케 하는데 ‘최선의 도구’ (the best instrument)라는 것이다.⁸⁶ 이는 종(servant)이 진지하게 주인을 좇아 따를 준비를 하고, 주님의 방식에 자기를 적응시키고 확신하기위해 주님의 방식을 찾고 관찰하는 것과 같다. 누구도 이러한 율법의 필요성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율법의 훈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의 순수한 지식으로 더 이상 새로운 진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지혜(wisdom)를 이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종(the servant of God)은 ‘권면’(exhortation)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율법의 유익을 얻게 된다. 즉 하나님은 율법을 자주 묵상케 함으로서 순종을 불러 일으키시고 강화시켜 정죄의 길로 빠져 들지 못하도록 한다. 아무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 노력해도 육의 태만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이때 율법은 게으른 말(馬)을 일하게 하는 채찍과 같다. 또 신령한 사람까지도 육의 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찌르는 가시가 되어 정지상태에 있지 않고 정진하도록 한다.⁸⁷

⁸⁶ Inst., II, 7, 12.

⁸⁷ Ibid.

칼빈은 율법을 찬송하는 다윗의 시(시 19:7-8; 119:5; 119:105)에서 이러한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즉 주님께서는 내심으로 순종하도록 준비시킨 자들에게 율법을 읽으므로 교훈한다는 것이다. 또 교훈(precepts) 뿐만 아니라 동반해서 오는 쓴 것을 달게 하는 '유일한 약속'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즉 다윗이 율법에서 '중보자'(Mediator)를 이해하였으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희락과 감미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⁸⁸

이와같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그리스도, 대신 저주를 지신 예수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은 신자들에게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⁸⁹ "이제 율법이 빛을 청산하지 않을 때 만족해 하지 않는 가혹한 징계관(enforcement officer)으로 행세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전하는 완전(perfection)속에서 평생토록 노력할 목표(goal)를 제시해 준다."⁹⁰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의의 완전한 표준'(a perfect pattern of righteousness)으로서 우리가 표준할 수 있는 유일한 규범이다. 또한 의무에 일치시키는 것 못지 않게,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율법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한 도덕적 순결을 요구한다고 놀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하고 저주하는 기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⁹¹ 율법에 대한 관계가 변화되었다. 또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한다.⁹²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후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 구속사업에 참여된 것이다.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는 우리의

⁸⁸ Inst., II, 7, 12.

⁸⁹ Inst., II, 7, 14.

⁹⁰ Inst., II, 7, 13.

⁹¹ Inst., III, 19, 2-3.

⁹² Inst., III, 19, 4-5.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를 전가하여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위치는 '생활의 규범'이라고 결론한다. 칼빈은 이와같은 율법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인 '제3용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다루고 있다.⁹³ 본론 제 V장에서도 칭의와 성화의 은총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활규범으로서의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V장에서 좀더 다룰 것이다.

2. 율법의 위치

지금까지 '구원 경륜에 있어서 율법'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밝히려 했다. 즉 칼빈에 있어서 율법은 단순히 복음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속에서 종교형식으로서의 언약이고, 또한 예배법으로서 보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본다. 물론 율법은 「죽게 하는 의문」(골 2:14)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요, 장차 올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상징과 예표'이다. 이때 복음은 율법의 계시를 더욱 더 분명히 한다. 개혁신교회도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율법과 복음'을 '신약과 구약의 구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신·구약 모두에 율법인 '명령이나 금령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뜻 전체'가 포함되고, 복음인 '화목의 사역에 속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추구하고 구속하는 사랑에 속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⁹⁴ 이 두 가지는 말씀의 구성요소로서 각각 은혜의 경륜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맡는다. 즉 율법은 죄의 인식, 죄의 억제,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일생동안 회개를 일깨우

⁹³ 「기독교 강요」Ⅱ, 7, 12-13.에 이어 Ⅲ, 6-7.에서 다룬다.

⁹⁴ 벌코프, 「조직신학, 하」 p. 873-74. 마르시온(Marcion)이후 일부 신학자들은 줄곧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한 나머지 양자가 서로 배격하는 것으로만 이해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갈 2:11-14),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예리하게 구분하여 대비시킨 항목(고후 3:6-11; 갈 3:2, 3, 10-14; 비교. 요 1:17)이다.

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믿음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⁹⁵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칼빈은 바울이 때때로 복음과 율법을 배타적으로 대조할 때는 율법은 더 이상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고, 다만 그를 정죄할 뿐이라는 그의 주장을 옳다고 하였음을 보았다. 이때는 영생의 은사가 이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의 성취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를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자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신자를 대신하여 행위언약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우리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강제,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오히려 생활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생활규범으로서 복음의 빛에서 율법을 보게 되는 것이다.

칼빈이 구원의 경륜속에서 율법이 종교의 형식으로서 언약법이요, 예배법이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면, 성화에 있어서의 율법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죄사함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화된다. 이 단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자유인이며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때 율법은 어떤 위치인가를 밝혀왔다. 즉 율법은 불신자에게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죄를 인식케하고, 또 악을 억제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율법의 '영원하고 유일한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율법의 본래 목적에 더 가깝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익히는 최선의 도구요,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강화시켜 정죄의 길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권면한다.

그러므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의의 완전한 표준'으로서 그리스도인이 평생토록 노력할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즉 필자는 '율법이 구원의 길은

⁹⁵ Ibid., p. 873.

아니나, 성화에 있어서의 표준'이요, 그리스도인의 영원하고 유일한 생활규범'이라는 위치를 밝힌다.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타락한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과는 다른 위치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율법의 근본 목적이 완성되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율법이 생활규범이라는 칼빈의 주장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V장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으로서의 율법'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IV.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성화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써의 선행

앞서 우리는 칭의와 함께 성화가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임을 알았다. 또한 율법은 강압적으로 저주와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증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화를 완성하게 하는 생활의 규범임을 알았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은혜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선행으로 감사를 표시한다는 사실이다. 이 선행은 바로 성화의 열매이다. 그런데 우리는 Ⅲ장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물리쳤다. 사실 이 말은 '선행'(good works)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행함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구원(salvation)까지를 행함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붙들고 의를 추구한다면 범법자들에게 선고되는 저주가 내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복음의 약속'으로 대신할 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good work)가 그를 기쁘게까지 해드린다는 것이다.¹ 이 선행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 가능하고 또 복음의 선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증생한 자에게,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율법의 약속'이 유효하게 된다. 또 신앙

¹ Inst., III, 17, 3.

적 의를 확립후에는 우리의 행위, 즉 선행이 의(義)로 용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가 선행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선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²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선행이 실천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여기서 다룬다.

A. 구원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위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이름과 표로서만 가진 것이 아니고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옷입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다."³ 중생의 목표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그들의 순종(God's righteousness and their obedience)과의 조화 및 일치'를 나타내는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된 것을 확신해 준다(갈 4:5; 벧후 1:10). 즉 칼빈은 중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며,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신생(newness)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⁵

이와같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신분상, 위치상, 성품상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복음의 효력은 철학자들의 냉담한 권고보다는 백배가 강하여 마음속 깊이 영혼 가운데 자리를 점하여 전인격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은 이해나 기억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 전체를 점유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감정 가운데 그 자리를 찾을 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미쳐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복음의 힘에 의해 변화되는 데, 신분상 '죄인'이 아니

² Inst., III, 11, 1 ; III, 16, 1.

³ Inst., II, 6, 4.

⁴ Inst., III, 3, 9.

⁵ Inst., III, 6, 1.

라 '의인' (the righteous)이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5-17)

이렇게 '양자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신다. 이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심으로 써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울 수가 없다.⁶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택한 자들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성화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자기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신 것이다.⁷ 이러한 아들은 그의 순종이 언제든지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불완전하지만 아버지의 관대하심에 용납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녀이다.⁸

둘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죄사함을 받은 '자유인'이다. 이 자유는 신령한 자유로서 절망과 공포에 쌓여 있는 양심을 위로하고 분발시켜 준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속박하고 억누르고 있던 저주와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참 자유를 의미한다.⁹

말하자면 양심이 율법의 필연성 때문에 강제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율

⁶ Comm. on Romans 8:15-17.

⁷ Comm. on Romans 8:14.

⁸ Inst., III, 19, 5.

⁹ Inst., III, 17, 3; Comm. on Galatians 5:26;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실로 자유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법의 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발적으로(willingly) 순종한다. 왜냐하면 양심이 율법의 지배아래 있는 한 끊임없는 공포 가운데 잡혀 있으므로, 이런 종류의 자유가 이미 부여되어 있지 않은 한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을 선뜻, 그리고 쉽게 가지게 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¹⁰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벧후 1:4)에 참여하도록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이고, 그 근원은 한 분인 아버지이다.(히 2:11) 우리가 이렇게 한 분인 주님과 연합될 때 성결의 영(롬 1:4)에 의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한다. 그리스도인은 불완전하지만 그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날마다 정진하도록 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인 만큼 자신에게 연합해준 자들을 그의 자신과 그의 나라에 적합하도록 성령으로써 순결하게 해주신다.¹¹

이와같이 증생한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관계가 변화된 것이다.¹² 즉 율법이 신자들에게 더 이상 옳은 것을 할 것을 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율법이 양심을 놀라게 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며 파멸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증생하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부단하고 계속적인 영향과 인도하심에 의한다. 성령은 성화의 영이다.¹³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은 어떠한 성령인가?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분으로 정(正)과 부정(不正)을 올바르게 분별해

¹⁰ Inst., III, 19, 4.

¹¹ Inst., III, 6, 1; III, 17, 6.

¹² Inst., II, 7, 14.

¹³ Inst., I, 13, 14.

주신다... 성령은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분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절도와 중용을 지키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다. ... 성경에서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배운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성결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며, 우리를 불결과 추함에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케 하는 것이다. 이 순종은 자주 해이하게 하려는 욕망을 억누르고 쳐서 복종하지 않은 한 유지될 수 없다. 둘째, 우리가 성령의 성결로 성화되는데 죽을 육체로 있는 한 많은 죄와 연약으로 쌓여있다. 그러므로 완전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꾸준히 전진토록 하며, 죄에 얽메이는 경우에도 날마다 이들과 싸우도록 한다.¹⁴

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동일한 은사를 날마다 더욱 발전시키고 확증한다. 특히 St. Jerome은 "성령님의 은혜없이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다.¹⁵ 따라서 그 누구도 성령에 의해 거듭남과 도움을 받지 않은 한 돌이킴을 받고 율법에 복종하도록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¹⁶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율법을 즐겨 지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¹⁷

이와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여 중생하지 않은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정황을 가지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 속에서 그것을 선물로 받아 지금은 새로운 관계속에 있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

「율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렘 31 : 33)는 것은 그것을 새김으로써 율법이 지배케 함이며 그 교훈과 일치하지 못하거나 화합하지 못하는 감정이 다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성령에 의해 거듭남을 입지

¹⁴ Inst., III, 3, 14.

¹⁵ Ursinus, pp. 479-80.

¹⁶ Comm. on Jeremiah 31 : 33.

¹⁷ Inst., III, 3, 3.

많은 한 돌이킴을 받고 그 율법에 복종하도록 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난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지 않으신 한, 사람속에 바르게 행하려는 의향이 생길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생기있게 하지 않은 한 언제까지나 죽은 것으로 존재한다.¹⁸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이요, 둘째 중생, 칭의 등의 은사를 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이요, 셋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비단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요, 인간의 정신이 자기의 육적 감각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명하는데 따라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덕을 보고 있는가를 먼저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또 충분한 열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순종하도록 깨우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²⁰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자녀삼으시고 자유를 주시고 성화시켜 주셔서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한 전적인 관계 변화'로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가 된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그의 영으로 중생변화한 교회내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한다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가운데에는 주님의 언약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적었고 거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와 비교하는 일없이 그들만 생각한다면 참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다.²¹

¹⁸ Comm. on Jeremiah 31 : 33.

¹⁹ Inst., III, 7, 1.

²⁰ Comm. on Romans 12 : 1.

²¹ Inst., II, 11, 8.

이러한 칼빈의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얼마나 다른 특정한 위치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되어 증생한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게 된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관계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여 선행을 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모두 증생한 자들이요(벰전 1:3),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고후 5:17) 죄의 영역으로부터 의(義)의 영역으로 옮겨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증거로서 그 부름을 굳게 하게 되는 것이고(벰후 1:10), 나무와 같이 그 열매를 보아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마 7:20, 12:33; 눅 6:44).

B. 성화의 열매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순종으로서의 선행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참되고 영원한 규범인 율법을 성령의 도움으로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율법에 대한 이 새로운 순종은 바로 성화의 열매다. 또한 율법에 대한 순종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참 신앙에 의해 의인이 된 자들은 신앙의 상상적인 환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종과 선행에 의해 의(義)를 실증한다. 즉 성화된 자는 새로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새로운 순종은 선행을 통해서 실현된다.²²

여기서 선행(good works)이란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들의 관습에 기초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행하고, 참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행위이다."²³ 그리고 선행은 증생된 자의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²⁴ 성화

²² Hepe, p. 576; Ursinus, p. 467.

²³ Ursinus, p. 476; Thirty-Third Lordis Day.

²⁴ Hepe, p. 578.

된 자의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선행은 구원의 성취에 있어 그 공적이거나 그 원인은 아니나,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²⁵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으로 열매 맺는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행을 결여한 자들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²⁶ 다시 말해서 선행을 실천하는 성결한 생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로서가 아니라, 그 생활을 통해서 영광의 나타나심(disclosure: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성화케한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의 큰 기쁨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기도 하므로(롬 8:30) 우리는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을 하신 것이다.²⁷(마 6:8, 5:16ff; 엡 2:10; 롬 12:2; 히 13:21). 이러한 선행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행하여질 때에 참된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가 된다.²⁸(약 2:18, 22) 그리고 선행도 역시 성화의 은총의 열매이다.²⁹

그러므로 중생하지 못한 선행은 하나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우리의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중생된 자는 기쁨으로 율법을 실천하게 된다.³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선행을 통하여 자신들의 감사를 표시하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며, 형제간의 덕을 세우며, 적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³¹ 그리

²⁵ 여기서 Braun은 선행은 신자들에게 필수적이라 하면서 그 이유를 ①하나님의 명령이고(사 1:20; 시 34:14; 딤후 3:16) ②믿음과 필연적 연합(약 2:20) ③하나님께 영광과 이유의 교화 ④의인과 인내의 증거 ⑤하나님께 감사 ⑥부름과 선택에 대한 확신 ⑦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²⁶ Inst., III, 17, 12.

²⁷ Inst., III, 18, 4.

²⁸ The Westminster, 16:1.

²⁹ Inst., III, 15, 7.

³⁰ Ibid.

하여 거룩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맺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한다.³²

이러한 선행의 힘은 역시 '성령'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엡 2:10)하였듯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한다. 선행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상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생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선행에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상은 못하고, 인간의 불완전 때문에 우리의 의무에도 미치지 못한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그 약점과 불완전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납된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하는 일은 믿음의 행위도 아니요(히 11:4, 6) 말씀에 따라 합당한 것도 아니며(고전 13:3, 사 1:12), 타당한 목적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도 아니기 때문에(마 6:2, 5, 16) 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³⁴

원래 선행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기에 본질적인 선이다. 또한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다.³⁵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행실없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후 7:1, 히 12:14)고 했다. 칼빈도 “선한 행실이 결핍된 신앙이나 선한 행실이 따르지 않은 칭의는 절대로 꿈꾸지 않는다”고 대답했다.³⁶ 또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신앙은 행함없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³¹ The Westminster, 16:1.

³² Inst., III, 18, 1.

³³ Inst., III, 14, 14. The Westminster, 16:2.

³⁴ The Westminster, 16:7.

³⁵ Heppel, p. 578.

³⁶ Inst., III, 16, 1. We dream neither of a faith devoid of good works nor of a justification that stands without them.

“이 신앙은 버림받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⁷

이와같이 선행은 부름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서로 성별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이 된’ 성화의 열매이며,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의와 거룩함에 있어 하나님을 닮아 성품에 있어 그의 참아들로 실증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고전 1:8) 완성된다.

바울은 이러한 선행의 위치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8-10)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순한 은혜이지 보상이나 보수가 아니다. 즉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공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선행’(good works)은 모두 중생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행위(works) 자체도 은혜의 일부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³⁸ 이것이 칼빈의 견해다.

결과적으로 의(義)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선행도 우리 자신의 고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할 수

³⁷ Inst., III, 18, 5에서 재인용.

³⁸ Comm. on Ephesians 2:10.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다.³⁹ 결국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자력으로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고 받아들여진 이상, 선행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것이다.”⁴⁰ 선행은 오래전부터 간직해 둔 이 하나님의 보고(寶庫)에서 끄집어 나오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중생시키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선행은 근본적으로 참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는 선행을 성령의 도움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선행은 감사의 표시이며, 믿음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생활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C. 중생후 용납되는 행위적인 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해 알아봤다. 그런데 오직 믿음에 의한 값없는 칭의와 죄사함이 선행(先行)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불완전한 행위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 자체가 율법의 약속들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없다 하시는 용서를 선언해 주는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선행)를 용납되도록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그를 기쁘게까지 하신다. 그렇다고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義), 즉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신앙적인 의’와 같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의롭게 하는 공적이 아니다.

³⁹ Ibid.

⁴⁰ Ibid.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물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까지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보답되어진다는 것을 시인한다.”⁴¹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말하면 신자의 행함으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행함에 대해 은혜를 얻는 원인을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행함으로부터 눈을 다른데로 돌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의 도움없이 자신에게 화해시키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관대함으로서 그들의 행함을 자체의 가치에 의해 평가하지 않고 존귀하게 높여주어 얼마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셋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용서로 받아들여 부패되어 있는 그 불완전을 불문에 부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⁴²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납하시는 방편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한에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행 10:34-35)는 말이 이해되지 않게 된다. 또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행 10:31)함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미 지혜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이미 성령으로 성화되어 있었다면 이해가 된다. 따라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것이요,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칼빈은 “참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접한 유일한 이유는 인간 혼자 내버려 두었을 때 전적으로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셨다. 더구나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공활을 베풀어서 값없이 그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같은 이유를 설명했다.⁴³

⁴¹ Inst., III, 17, 3.

⁴² Ibid. 인간을 용납하는 방편은 이중적이라도 그리스도의 의(義)외에 의롭게 하는 길이 없다.

⁴³ Inst., III, 17, 4.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으로 용납됨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실천되는 선한 일을 사랑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즉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행 10:34)은 하나님이 행위의 근원(source)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롭게 함에 추가해서 그 자신이 용납했던 선행을 역시 은혜롭게 받아주시는 것이다.⁴⁴

중생의 목표가 우리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실 때 당연히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듯이, 신자들의 생활이 '성결과 의'(holines and righteousness)로 틀어 잡힐 때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⁴⁵ 사실 신자들도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으로 쌓여 있는 이상 여전히 죄인이요, 선행은 시작에 불과하며 죄악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받아주시기 전'에는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free mercy)은 모든 은사의 기원으로서 다른 은사들보다 선행(先行)한다.

이와같이 모든 은사에 선행(先行)하는 '신앙적인 의'(righteousness by faith)를 확립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하여 그들의 행위(good works)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칭의의 원인(cause)이 믿음에 있다는 것'은 당연하나, 그 결과(effect)로서 우리의 부족하고 흠있는 행위까지도 의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이중적인 의인 교리', 즉 '행위적 의'(operum justitia)라고 한다.⁴⁶

이러한 중생된 자의 행위는 불신 가운데 행한 행위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그러나 중생된 자의 행위가 불신자의 행위와 구별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부터 조금이라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어떠한 선한

⁴⁴ Inst., III, 17, 5.

⁴⁵ Ibid.

⁴⁶ Inst., III, 17, 8-10. 번역에 있어서 칭의후 이중용납인 의는 '행위적 의'로서 영어는 'works righteousness'이다. 즉 'operum justitia'이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며 '행위에 의한 의'인 'righteousness of works'와 구별된다.

행위도 자체 의를 받을 가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공홀로 우리 자신과의 행위까지 용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엡 3:18)에 있다고 한 것이다.⁴⁷ 칼빈도 “중생된 자의 행함’도 ‘값없는 의’에 의존한다”고 하며 “무엇이든지 내속에 선행이 있다. 그것은 모두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입니다”라고 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했다.⁴⁸

이러한 근거에 의해 보면, 성경이 여러곳에서 ‘신자들의 선행(the good work of believer)이 은혜를 주시는 원인’(신 6:25, 24:13, 시 106:30-31)이라고 말한 구절들이 이해되나, 원래는 논리적 모순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칼빈은 이와같은 사실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원천과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⁴⁹ 즉 구원의 효과적인 원인(efficient cause of our salvation)은 아버지의 사랑안에 있고(롬 3:23-24), 실질적인 원인(the material cause)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에 있다(롬 3:24). 또한 매개적인 원인(the instrumental cause)은 성령의 조명(spirit's illumination), 즉 신앙에 있는 것처럼(롬 3:26), 결과적인 원인(final cause)도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롬 3:26) 그 자비에 대하여 찬양을 돌리는데 있다(엡 1:3-14)는 것이다. 전부 우리의 밖에(alien)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중생된 자의 행함을 보다 더 열등한 원인(inferior causes)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도 막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그의 공홀에 의해 영생의 기업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자기의 보통 경륜(ordinary dispensation)에 의해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다.⁵⁰

⁴⁷ Inst., III, 14, 19.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경우(행 10:34-35) 이미 성령으로 성화된 사람이다(갈 5:5).

⁴⁸ Inst., III, 14, 20.

⁴⁹ Inst., III, 14, 21.

⁵⁰ Ibid.

이것은 경륜의 순서에 있어서 선행하는 것(a priori)은 후에 오는 것(a posteriori)의 원인이라는 것이다.⁵¹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 주님께서 때때로 영생을 행위로부터 인출해 내지만(롬 2:6-7; 잠 12:4; 마 5:12; 고전 3:8),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행위에 있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그가 택한 자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롬 8:30). 즉 칭의(justification)는 'a priori'이고 선행(good works)은 'a posteriori'이다. 그래서 칼빈도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롬 6:23)는 바울의 말을 들어서 사망의 원인은 죄나, 영생의 원인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즉 공휼'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 '칭의와 선행의 관계'에 있어 영생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것으로(요한 1:16) 중생의 선행(the good works of regeneration)의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이때 값없이 주시는 공휼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며, 이 공휼은 일체 은사의 기원으로서 은사들보다 선행(先行)하고 있는 것이다.⁵²

주님은 멸망의 못으로부터 인간을 끌어내서 아들로 삼아주시는 은총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의롭게 하여 성별케 해주셨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인간을 새롭게 낳아주시고 새생명으로 개조해 주셨으니 만큼,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갖추어 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를 영접하시는 것이다(고후 5:17).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영접(acceptance)(행 10:34, 벰전 1:17)으로서 이것 때문에 신자들은 부름받은 후 행위에 관해서는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벰전 2:5).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선한 일을 사랑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주님이 그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다.⁵³

⁵¹ Ibid.

⁵² Inst., III, 17, 5.

⁵³ Ibid.

결국 주님의 공훈이 성취되는 것은 신자들의 행함(believer's work)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평한 생활로서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되는 자들에게만 그는 '자녀로서의 건전한 표' (the only genuine insignia of his children)를 인정하기 때문이다.⁵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쓴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롬 4:3; 갈 3:6)라고 한 반면, 바느하스가 「행한 일이 저에게 의로 정하였느니라」(시 106:31)고 하였으니, 성경이 모순되지 않은 한 바울이 신앙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한 의(義)를 확립한 신자의 행함에 관하여도 논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works), '그 자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신앙적인 의' (Justification by faith)가 확립된 후 행위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⁵⁵ 즉 행위가 그 가치에 따라서 평가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전에 나갈 가치가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용서(forgiveness of sins)가 전제되어 있는만큼 그후에 따라오는 선행(good works)은 그들 자신의 공적이 아닌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행위에 있어서의 '불완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 (Christ's perfection)에 의해 가려지고, 모든 흠집이나 오점은 '그의 순결'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앞에 나와 심문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 범죄의 죄책은 도말되고, 또 선한 행실까지 더럽히게 하는 '불완전'이라는 결함도 매몰되어 신자들이 한 선행은 의(義)로 간주되거나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⁵⁶ 그러나 이 '행위적 의'는 '신앙적 칭의'

⁵⁴ Inst., III, 17, 6.

⁵⁵ Inst., III, 17, 8.

⁵⁶ Ibid.

가 굳게 영구히 존속하지 않은 한 행위의 불결은 폭로되게 된다. 그 이유는 '신앙에 의한 칭의'가 '행위적 의'의 시작이요 터전이요 원인이요, 증거요, 본체이기 때문이다.⁵⁷ 그러므로 결과가 원인에 존속되는 것같이 '행위적 의'가 신앙적 의를 파괴하거나 스스로를 추겨올리는 일은 절대로 안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중생된 자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행위까지도 그만큼 의로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⁵⁸ 사실 의(義)는 완전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의 행위적인 의는 불완전한 것이며 부분적인 의인데도, 이것까지 의로 여겨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은것'(롬 4:3, 갈 3:6)을 선언했고, 반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약 2:21)라는 두 선언은 한 성령(Holy Spirit)이 바울과 야고보의 입을 통해 모순되게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칭의의 원인인 '신앙적 칭의'를, 야고보는 칭의의 결과인 행위적인 의를 말한 것이다.⁵⁹ 야고보가 신자들에게 선행으로 열매맺는 의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울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적 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선행을 결여하고 있는 자들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허수아비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신자는 자기의 선행에 의해서 의(義)를 선명히 한다는 것이 증명된다.⁶⁰

⁵⁷ Inst., III, 17, 9.

⁵⁸ Inst., III, 17, 10.

⁵⁹ Inst., III, 17, 11-12.

⁶⁰ Inst., III, 17, 12.

여기서 우리는 중생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왜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실천하게 되는가' 하는 대답이 나온다. 즉 칼빈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약을 지키는 종들은 어떻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사랑의 공경을 받고 존귀를 받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셨다. 이처럼 성경 가운데 공훈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이들 은혜의 창시자를 공경하고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의무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즉 그 의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외하기 위하여 아들로 삼아 주셨으므로 '아들된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부름받은 목적'을 향하여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¹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은 의(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이 감사는 진실성과 공정성으로 나타난다는데 진실성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공정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순종과 선행(obedience and good works)으로 구성되는 진실한 예배이다.⁶² 이러한 연유로 앞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가 태양의 빛과 열처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했다. 또한 "칭의가 결코 선행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⁶³

⁶¹ Inst., III, 17, 6.

⁶² Ursinus, p. 464. That we know that all our good works are expressions of thankfulness, and have no merit in the sight of God(Thirty-Second Lord's Day). 이 감사의 기본 골격은 회개와 율법, 선행, 기도라고 Ursinus는 여기서 말하고 있다.

⁶³ Inst., III, 11, 1.에서의 근거로 IV장 서두에서 제시했다.

D. 선행과 상급

우리는 선행이 성화의 열매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에 따라 행한다는 사실과 함께 '의' (works righteousness)로서 용납됨을 확인했다. 즉 선행이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의'가 그 원인이고 본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eternal life)이 선행에 의한 상급(reward)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결국은 영생」(벧전 1 : 9)이라는 말과 일치함을 알게 된다.

이런 이유로서 성경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 : 17), 또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했다(롬 2 : 6-7; 비교 잠 12 : 4; 사 3 : 11; 마 5 : 12; 눅 6 : 23; 고전 3 : 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선포(고후 5 : 10; 롬 2 : 9, 10; 요 5 : 29; 마 25 : 34-35, 42)는 사건의 '원인으로 보다는 결과의 순서' (an order of sequence rather than the cause)이라고 한다.⁶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롬 8 : 30)라는 공훈의 순서를 가지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다.⁶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훈에 의해서만 택한 자녀들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선행'이라는 경주를 통하여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그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선행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는 것이다.⁶⁶ 아브라함이 이미 복 받는 약속을 받았지만(창 15 : 5, 17 : 1 이하), 그 오랜 후에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창 22 : 3)에 순종한 후 주셨다(창 22 : 16-18).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위가 고려되기 전 이

⁶⁴ Inst., III, 18, 1.

⁶⁵ Ibid.

⁶⁶ Ibid.

미 그들에게 준 은혜(약속)를 신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갚아준다는 것이다.⁶⁷ 「이 일(선행)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엡 2:10)라고 했듯이 선행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된 것이다.⁶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불완전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고, 선행을 통하여 의심없이 불멸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이미 된 것이다.⁶⁹ 즉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중생된 자들에게 현세에서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까지 약속하신 것이다.⁷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그의 관대함을 가지고 검토하시지 그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행함(good work)을 마치 완전히 순결한 것처럼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상급을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한없는 은혜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⁷¹ 이때 선행으로 받은 보상(recompense)은 영생이다(요 6:27).⁷² 믿음의 결국과 같다. 선행이 중생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선행이 '구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또 천국에 대한 종들의 일삼도 아니다. 주님께서 자녀로 입양한 자들이 즐길 수 있는 기업(son's inheritance)(엡 1:18)이다.

오직 아들로 삼아주는 양자가 되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롬 8:18)⁷³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영생복락을 행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⁶⁷ Inst., III, 18, 2.

⁶⁸ Comm. on Ephesians 2:10.

⁶⁹ Inst., III, 18, 1.

⁷⁰ Inst., II, 8, 4.

⁷¹ Inst., III, 15, 4.

⁷² Inst., III, 18, 4.

⁷³ Inst., III, 18, 3.

로 받아주시는데 돌리는 것이다.⁷⁴ 왜냐하면 주님은 선행이 있기 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선행에 대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선행을 통하여 약속된 것들에 대한 결실이나 선물(fruition or presentation)을 명상하고, 또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구하여 달리도록 훈련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결실을 행위에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 행위는 약속된 결실의 성숙으로 우리를 이끈다.⁷⁵ 포도원의 비유(마 20:1-5)에서도 노동(work)의 양에 관계없이 태함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똑같이 주셨다. 그래서 칼빈은 “신자들이 복음의 지식과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부름을 받을 때, 영생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이 시작되었으니 ‘주 예수의 날’(the Day of the Lord Jesus)까지 완성시켜 주신다”고⁷⁶ 말한다(빌 1:6). 이때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닮고 의와 거룩함을 소유한 참아들로서의 실증이 되는 때로서, 비로소 선행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때를 칼빈은 육신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품안에 있을 때이라고 한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영접받고(acceptance) 그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그와 하나가 될 때(when communion and union with christ)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것은 오직 아들로 삼아주시는 양자가 되는 은혜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⁷⁷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생’을 ‘은혜’라고 했다. 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생(eternal life)이다(벧전 1:9). 또한 영생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을 돕는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비케 하며

⁷⁴ Inst., III, 18, 2.

⁷⁵ Inst., III, 18, 3.

⁷⁶ Inst., III, 18, 1.

⁷⁷ Inst., III, 18, 3.

우리를 완패케 한다. 이때에 '영생의 약속'이 기대와 소망과 위로를 주어서 우리의 연합함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즉각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곤란과 절망과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함께 계시며,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축복을 찾도록 더 멀리 눈을 향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당한 화보다 더 큰 행복으로 전환시켜 준다.⁷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본성적인 생활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율법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선행(good work)에 의해 증거된다.⁷⁹

이와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선행(先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대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주시게 된다(딤후 4:8). 결국 '율법의 약속'도 '복음'을 통하여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⁸⁰ 즉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고(벰전 1:9) 율법의 약속도 영생이었다(레 18:5). 이렇게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은 일치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선행으로 상급(reward)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소망가운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 선행을 우리가 영생복락에서 누리는 부(富)에 비유했다.

“만약 「네 보물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한 그리스도의 말이 참이라면, 이 세상 자녀들이 현세에 낙을 누리기 위해 '물건'을 얻기에 마음을 늘 열중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이 생명이 곧 꿈같이 꺼져버릴 것임을 안다면, '참으로 누리기 원하는 것'을 확고부동한 생을 살 나라(영생:하늘나라)로 옮겨서 열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⁸¹ 즉 이땅에서 선행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옮기는 방법

⁷⁸ Inst., III, 18, 4.

⁷⁹ Hepe, p. 576.

⁸⁰ Inst., III, 18, 3.

⁸¹ Inst., III, 18, 6.

이 선행인 것이다. 예로 불쌍한 사람의 필요를 보태줘도 된다(마 25:40; 잠 19:17). 이러한 '사랑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손에 감추어진 부(富)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복돋아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봉사가 그의 눈에는 차지 않을 가치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어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용납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대로 율법의 목적과 성취는 '사랑'인 것이다(딤후 1:5).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넘칠 것을 기도했을 때(살전 3:12),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 전체에 대한 영감을 주지 않은 한 사랑은 우리의 귀에 무익하게 울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마 22:37-40).

바로 선행이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행해지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빛을 돌려 드린다. 이웃을 위해서는, 모범과 유익하고 경건한 대화로 그들을 교화하고 또 불신자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선행은 필요한데, 우리가 삶속에서 맺는 열매로 신앙의 존재함을 확증한다(마 7:17; 빌 1:11; 약 2:17).⁸²

그러므로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요 성화의 열매인 선행을 기쁘게 실천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이 있고, 내가 증생된 자로서 참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했다.⁸³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만 약속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관용과 아버지의 선하심에 따라 획득한다. 이것은 그분께 순종하고자

⁸² Ursinus, pp. 482-85.

⁸³ Comm. on psalms 19:8.

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욕구와 노력을 완전한 의로 받아 주시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성화와 선행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성화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순종하도록 마음이 틀어 잡혀 성별되는 것이듯이, 또한 선행은 율법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옛 생활이 사악한 행위들에서 자신을 나타내듯, 중생안에서 발원하여 성화에서 촉진되고 강화되는 '새생명'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서 선행(good works)에서 나타난다.⁸⁴ 그러나 이러한 선행의 근원이 칭의에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이미 선행도 그 은혜로 예비하여 놓으신 것이다(엡 2:10).⁸⁵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상급을 우리가 선행을 실천할 때 보상하신다. 그것이 영생이다. 구원은 의롭게 된 것으로 믿음으로서 즉각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요일 3:2)는 요한의 말처럼, 「우리의 구원이 소망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골 3:3; 롬 8:24).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재충만하게 제공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누리려는 것은 소망의 감독 아래 감춰져 있어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들보다 앞서 가신 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⁸⁶ 우리가 생활의 거룩함으로 날로 정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선행이 공적은 아니다. 신앙적인 의를 기초로 한 선행은 '행위적인 의'로서 용납되어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다. 이로서 우리는 선행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이뤄지며, 또 행위적인 의로서 용납된다는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서론에서 제시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나, '칭의가 선행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⁸⁴ 벌코프, p. 793.

⁸⁵ Inst., III, 18, 2.

⁸⁶ Inst., II, 9, 3.

이 증명되었다.⁸⁷ 즉 칭의가 성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원인인 신앙이, 성화의 열매인 선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생활의 거룩함을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⁸⁷ 이 말은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의롭게 된다는 동시에 성화되어 성령의 도움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선행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칼빈의 표현은 정확히는 다음과 같다. We dream neither of a faith devoid of good works nor of a justification that stands without them. This alone is of importance; having admitted that faith and good works must cleave together, we still lodge justification in faith, not in works(Inst., III, 16, 1.); Thus it is clear now true it is that we are justified not without works, yet not through works; (Inst., III, 16, 1.); The theme of justification was therefore more lightly touched upon because it was more to the point to understand first how little devoid of good works is faith, through which alone we obtain free righteousness by the mercy of God.(Inst., III, 11, 1.).

V.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으로서의 율법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 받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과 함께 성화도 된다. 이들은 신앙의 이중열매며, 하나님의 이중은총(a double grace)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 우리는 날마다 계속적인 진보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때 성화에 있어서 율법은 무엇인가? 앞서 율법의 위치에서 우리는 율법이 생활의 규범이라고 대답했다. 이점을 더 알아보려고 한다.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기를 요구한다. 즉 율법은 구약시대에나 그리스도의 율법성취 이후에도 계속 언약백성들의 생활규범으로서 역사한다. 특히 도덕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도 일점 일획의 가감도 없이 더 강하게 지켜지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칼빈은 성화를 정의할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틀이 잡혀서 생활의 참된 성결속에서 주께로 성별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이 율법은 성화에 있어 표준(pattern)이 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a perfect pattern of righteousness)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부르셨다(벧전 1:16, 롬 8:30).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義)인 율법을 규범으로 하여 살 때만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의 거룩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후 율법의 위치를 알기위해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했음으로 율법이 필요없다는 율법폐기론자(antinonianism)들의 견해를 불식시키고 율법이 생활의 규범임을 증거하며, 그 필요성을 논함이 합당하다고 본다.

A.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칼빈은 율법이 「죽게하는 의문」(고후 3:7)이라는 성경구절을 들어서 '율법이 기독교인에게 이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자들을 사악한 자로 보고 꾸짖는다.¹ 즉 모세는 불신 죄인들에게는 죽음밖에 아무것도 일으켜 주지 않은 율법이 '성도'에게는 한층 더 크고 더 탁월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율법이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신 32:46-47)라고 하였듯이, 율법은 삶을 위한 영구불멸의 규범이라는 것이다.² 다윗도 「복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하였는데 이 말은 한시대 뿐만 아니라 매 시대 세상끝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³

칼빈은 또한 「율법을 폐하려 온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여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눅 18:17마 5:17-18)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당시의 잘못된 「율법의 폐기사상」에 대해 못을 박고 있으며, 바울도 율법의 폐기 문제에 대해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롬 3:31, 롬 7:6 이하)고 주장한다.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일은 하나도 제거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완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오신 목적이 율법을 범하는 자를 구조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교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에 의해 불가침한 것으로 남게 되어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치고 권고하며 교정하여

¹ 루터의 제자 아그리콜라(Agricola)를 통해 율법은 죄에 관계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관하다는 견해가 루터교회신학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Luther와 Melancton과 충돌하였다. Calvin은 당시의 재세례파 등 율법폐기론자들을 꾸짖었다(II, 17, 13); G. C. Berkower, *Faith and Sanctifica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pmany, 1780), p. 164. 참조.

² Inst., II, 7, 13.

³ Ibid.

⁴ Inst., II, 7, 14.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틀을 잡아주고 또 준비시켜 준다.(담후 3:16-17)⁵

칼빈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의 폐기된 것과 안된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⁶ 즉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갈 3:10; 비교 신 27:26)는 율법 자체의 저주가 아니라 죄때문이며(롬 7:17-14),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양심을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롬 7:7-12)」

이와같이 원래 모든 규례와 법도는 올바른 생을 영위하게끔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레 18:5). 그러나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the righteous)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전 7:20) 모든 사람이 저주아래 놓인 것이다.(갈 3:10). 이러한 저주가 그리스도에 의해 극복된 것이다. 저주는 극복되었지만 율법은 태초부터 생활규범이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통해 속박해 오는 성격의 것이다. 즉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고, 또 한편에서는 속박하는 2가지 조건 아래서 율법을 보고 있다.⁷ 그러

⁵ Ibid.; III, 19, 2.에서는 칭의의 부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⁶ Inst., II, 7, 15.

⁷ Comm. on Acts 15:10. 본 논문 V장 B절의 '생활규범으로서 율법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나 칭의후는 단지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의미다. 또한 「율법행위에 속한 자」(갈 3:10)라는 말도 의(義)을 근거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도 손상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아래 주어진 저주만 폐기된 것이다.⁸ 이것은 양심의 해방(liberation of conscience)인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율법적 의식(lawful ceremonies)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 보고 있다. 의식법의 효력과 힘은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그 자신의 죽음으로서 인증해 주셨음으로 마찬가지로 그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그 용도(use)에서만 폐지되었고 그 거룩성은 조금도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⁹ 구약의 의식법에서도 상징과 그림자로서 제시된 그리스도는 이제 분명하게 계시되었고 우리는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으로’ 대신함으로서 그리스도안에 존재하는 그림자(골 2:17)로서의 의식법들(ceremonical law)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준수가 쓸데 없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기 때문이다.(골 2:16-19) 그러나 그 본질과 정신은 주일성수, 십일조 등에서의와 같이 형식에서 자유롭게 그대로 존속된다. 만약 구약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 그의 죽음이나 부활의 권능이 없다면 그 의식들은 전시(display)에 불과하고 그 제정목적은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¹⁰

비록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식들을 준수하는 일은 종식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강림

⁸ Inst., II, 7, 15; III, 19, 2.

⁹ Ibid.

¹⁰ Ibid.; Inst., II, 7, 16. 예를 들어 먼저 안식일 문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구원얻은 백성으로서 부활의 날, 즉 재창조의 첫날(고전 15:20; 빌 3:21; 계 21:23-25, 22:5)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지킨다. 주일을 지키되 구약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보다 더 잘 지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다음으로, 십일조와 성물들도 구약백성처럼 구원의 방법으로 바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도(道)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바친다. 이때 그 정신은 구약의 십일조와 같다. 다만 여기서는 율법적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십일조의 본질과 그 정신이 강한 요구로 역사한다.(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pp. 84-5.)

전에는 그 의식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었나를 그리스도는 또한 보여주고 있다.¹¹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 되었는데(마 27:51), 이를 히브리기자는 분명치 않은 것이 명백한 은혜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빛가운데 명시되었다고 묘사했다(히 10:1).

또한 시민법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생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다. 타민족에게는 일반적인 공평(equality)을 요구하는 것이 외에는 자유스럽지만 그 규례의 근거는 역시 무변하다고 칼빈은 말한다.¹²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이 선한 생활의 규칙이요, 인간들을 규제하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일 이 율법이 폐지된다면 모든 권징이 땅에 떨어지고 구속력이 산산조각이 난다. 그리하여 증래는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율법에서 인정하시는 의(義)가 그 율법이 폐지될 때 폐지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폐기는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율법(precepts)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확증하시고 재가하시며 폐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중에서 유일하게 제거된 부분은 저주(curse)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비록 바울이 이점을 명백히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점을 암시하고 있다¹³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기된 것은 율법의 자체가 아니라 '저주'와 의식법에 있어서의 용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고, 그림자인 의식법은 참된 형상을 갖춤으로서 근본목적으로서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¹¹ Ibid. 칼빈은 구약백성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의식 때문이 아니요, 참 형상인 그리스도 때문이다(히 10:1-2; 고전 10:1-4). 그래서 사도들은 멀리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손발같은 의식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했다(히 7:7-10).

¹² Inst., IV, 20, 15.

¹³ Comm. on Romans 6:15.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들과 같은 은혜에 참여하였다고 한다.¹⁴ 이는 그림자로서 필요했던 의식에 참형상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구별하고 있는 '의식'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면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말한 성경구절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한다.

칼빈은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골 2:14)라는 말씀에 대해 말했다. 즉 이것은 율법을 아주 폐지해 버려 우리가 더 이상 그 의문에 쓴 증서인 율법과 아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의식적 율법(The ceremonial law)의 용도에 있어서의 폐기만을 말하고 있다.¹⁵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엡 2:14-15)라고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막힌담'은 의식에 속한 율법이고 그 폐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칼빈은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의식 가운데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주님께 성별케 했던 의식적인 정결과 제물들이 바로 그들의 이방인들과 구별케 했기 때문이다. 또 칼빈은 「우리를 대결하는 증서」(골 2:14)라는 바울의 표현도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도 계속 의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짓 사도들과 율법준수에 대한 논쟁때문이었다고 한다.¹⁶ 사실 유대인의 의식이 속

¹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송송섭역(서울: 소망사, 1990), 19:6.

¹⁵ Inst., II, 7, 11; Comm. on colossians 2:14.

¹⁶ Ibid. 당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다 다시 율법의 준수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Comm. Acts 15:17-21, 참고.

죄보다는 자신이 불경하다는 '죄의 고백'이었다고 칼빈은 말한다. 왜냐하면 사도가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것이다」(히 9:15) 하였음을 볼 때, 바울이 이제 쓸모없고 해로운 의식들을 준수하는 자를 우리를 「대결하는 의문의 증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므로 복음후에도 그리스도 교회를 다시 율법 의식의 준수에 얽매려고 한다면, 그 의식은 인간의 구원을 거스리는 의문인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이것을 경고한 것이다.(골 2:16이하) 이 의식들은 그 자체로는 죄를 확증하는 효력은 있으나 죄를 도달하지는 못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단 한번에 이룩하였을 때 의식들을 날마다 지키는 일을 폐하게 된 것이다.¹⁸ 바울은 복음의 명쾌함이 유대주의적 그림자들로 인해 흐려졌기때문에 모세의 의식 가운데 그림자로서 예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나타내 주는 것이 '그리스도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¹⁹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볼 때, 칼빈은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의 폐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²⁰ 이 점에 있어서 신약의 증언과 일치한다(마 5:17-19, 롬 3:31). 그는 오직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의 폐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가장 좋은 해석자'라 한다.²¹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영인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와 강제 그리고 그의 의식 및 정치적 규정으로부터 해방되었다.²² 즉 그리스도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¹⁷ Ibid.

¹⁸ Inst., II, 7, 17; II, 7, 16; The Westminster, 19:3.

¹⁹ Inst., III, 19, 3.

²⁰ Comm. on Romans 6:15; 니젤, p. 94.

²¹ Inst., II, 8, 7.

²² Inst., III, 19, 2; III, 19, 5; III, 7, 16; IV, 20, 5.

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 까닭에 그 율법의 가르침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려 오셨다. 또 범법자를 구원하려 오셨다. “그런 까닭에 율법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의해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 율법은 가르치고 경고하고 꾸짖고 바르게 함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며 갖추게 한다.”²³ 이것은 칼빈이 율법의 용도를 죄의 인식과, 견제, 그리고 생활의 규범이 된다고 3가지로 말할 때, 율법의 제3용도(*tertius usus legis*)로서²⁴ 주요한 사용(*principal use*)이요, 율법의 원래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규범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속에 그의 형상이 우리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신생(*newness*)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 대한 양심의 해방은 그리스도인에 한해서 이다.

B. 영원한 생활규범으로서의 율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칭의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수 없듯이(고전 1:13)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들이라는 것도 이미 알아 봤다. 이때의 성화가 하나님과의 의(義)인 율법에 대해 새롭게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이 성령에 의해 틀이 잡히는 것이다. 성화에 있어서 율법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저주만 폐지되었고, 의식

²³ Inst., II, 7, 14.

²⁴ Paul Jacobs, Prädestination und Verantwortlichkeit bei Calvi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8), p. 103에서 Paul Jacobs는 “소위 칼빈 윤리라 불리는 성화의 교리의 논문은 ‘율법의 제3용도’(tertius usus legis)의 교리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²⁵ Inst., III, 6, 1.

과 정치적 규정들은 용도(use)에서만 종식되었지 그 본질과 정신은 오히려 완성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도덕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표현'으로서 강화되고 '우리 생활의 규범'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생활규범인가에 대해서는 칼빈은 그의 주석 여러곳에서 율법이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밝히고 있다.²⁶

즉 율법이 2가지 방법, 혹은 요소의 명에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율법의 명에가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고 경건하고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한 표준으로서의 명에이고, 또 하나는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에서만 생명이 약속되나(레 18:5), 어느 부분이라도 완전히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저주(신 27:26)를 받는 견디기 힘든 명에이다.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명에와 저주는 폐기되었고, 생활규범으로서의 율법은 더욱 강화되었다(롬 3:31).

여기서 위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강요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즉 하나님의 영이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도록 인도하지 않는 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없을 것이다. 당시 모세가 전해준 엄숙한 증언에 모든 사람들은 의심을 갖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전하는 것은 이 명령을 읽게 할 목적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하게 할 목적이라고 경고했지 않는가(신 30:12).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명에를 메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율법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칼빈은 율법이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명에로 간주된다고 「사도행 전주석」에서 대답한다.²⁷

²⁶ Comm. on Acts 15:10, 11.

²⁷ Comm. on Acts 15:10.

첫째, 율법이 육신의 정욕을 거거하고 경건하고 바른 생활을 하기위한 표준(pattern)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응해야 하는 명에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교훈은 모든 사람이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명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활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떤 구속이 없이 원하는 대로 방황하게하도록 내버려두시는 것보다 더욱 불합리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단순한 교훈을 고려할 때 그 율법의 명에는 배격될 수가 없다.²⁸

둘째, 율법은 하나님께 드려야할 의무를 정한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조건에서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율법중 어떤 것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curse)를 받는 견디기 어려운 명에이다.

즉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레 18 : 5),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 : 26)는 말씀들은 견디기에 힘든 명에인 것이다. 오직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 중 어떤 것을 범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한 인류는 절대적으로 멸망을 당한다.²⁹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 명에들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두요소가 다 명에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리스도가 이 명에를 지고 성취하심으로 약속이 이뤄지도록 하신 것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죄의 용서에 의한 현실적인 도움을 갖게 될 때 “이 명령은 먼 것도 아니라”(신 30 : 11)는 모세의 말이 성취된다. 그렇게 되면 우

²⁸ Ibid.

²⁹ Ibid.

리는 '그리스도의 멍에'가 얼마나 호감을 주는 것이며 그의 짐이 얼마나 가벼운가를 깨닫게 된다(마 11:30). 그리하여 율법의 저주와 엄격성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제거되고 생활규범으로서 율법의 교훈은 성령의 도움으로 견딜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고삐를 거절하지 않게 된다.

또 칼빈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율법이 의롭게 하는 힘이 있다면 인간을 의롭게 하는 2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율법은 인간에게 의롭게 하는 힘이 없다.(롬 3:21) 왜냐하면 죄로 인해 생명에서 내쫓김을 받았으니 구원을 율법에서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행위의 의(義)는 별거승이가 되었으므로 은총의 계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향하여 피할 곳을 찾는 것밖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다. 칼빈에 의하면 “바울은 결국 율법이 그리스도에 이르는 준비라는 것과 그리고 일시적인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³⁰

그렇다면 율법은 벌써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폐지되었는가? 묻는다. 칼빈은 “율법은 생활의 규범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는 잡아끄는 고삐이다. 우리 육신의 나태함을 교정하기 위한 자극이 되는 한, 다시말해서 모든 선한 행실을 하도록 인도하기에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기에 유익이 되는 한, 율법은 지난 날과 같이 오늘도 유용한 것이다”라고 대답한다.³¹

그러면 칼빈은 바울이 어째서 율법은 폐지됐다고 하는가? 묻고 대답한다.

율법은 행위에 대하여 보상과 형벌을 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모든 위반자들을 저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율법이 사람에게 요청하는 바는 더할 나위없이 완전함, 그리고 절대의 복종이다. 율법은

³⁰ Comm. on Galatians 3:21-25.

³¹ Ibid., 3:25.

아무것도 면제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고 지극히 적은 과실까지도 헤아린다. 율법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흰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다만 멀리서 그를 가르치며 또 마치 포장한 것처럼 '의식' 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능력이 폐지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모세의 임무는 외면적으로 볼때 '은혜의 계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이다.³²

칼빈은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주를 가져오는 율법의 능력이 폐지된 것과 의식법의 용도가 끝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도 마음의 부패를 고치거나 교정해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율법의 이 두가지 요소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 구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에 장소를 허용하여 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면에서 율법은 신자를 가르치며 또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는 아주 다른 것인 만큼 우리들은 이것들을 옳게 그리고 엄밀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³³

즉, 성경은 율법을 항상 같은 의미로 말하지 않는다. 생활에 따라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많다. 성경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행위언약에서 작용한 것으로 언급된다. 이 행위언약에서의 영생은 율법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레 18:5). 인간은 타락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으며 그 결과로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여 본질상 저주의 선언 아래 있게 된 것이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킬 때는 율법이 지닌

³² Ibid.

³³ Inst., III, 19, 2.

이같은 양상, 곧 행위 언약에 있어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³⁴ 이러한 의미로서의 율법은 더 이상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고 다만 그를 정죄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같은 특별한 의미에서의 율법, 다시말하면 영생을 얻는 방편(구원의 길)로서의 율법과, 정죄하는 능력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롭게 될 수 있다.³⁵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행위언약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별한 의미의 율법과 무조건적인 은혜의 복음을 서로 배타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성경은 율법을 언제든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에 대한 불변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치가 항구적인 것을 가르치셨다(마 5:17-19).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의 요구가 삶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며(롬 8:4), 자신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롬 13:9-10). 야고보는 율법의 계명 중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한도 죄를 불법으로 정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기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요일 3:4; 5:3)

그러므로 '인간이 은혜안에 들어갈 때', 언약과 그 언약에 뒤따르는 모든 특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도록 요청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비록 인간이 율법의 요구에 응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지만, 성화가 인간과 협력적인 작업인 한에 있어서는 인간이 소유하는 약속은 인간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의무에는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

³⁴ 벨코프, p. 875.

³⁵ Inst., III, 19, 2.

하게 하신다는 보증도 들어 있다.³⁶

왜냐하면 칼빈은 칭의나 성화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제일 경계했기 때문이다.

C. 성화에 있어서 율법의 필요성

우리에게는 율법이 생활의 규범이라는 것 등, 율법의 다양한 용도(uses)가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알아본 만큼³⁷, 이제 우리들로서는 율법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지당하다. 사실 율법의 용도 중에서 율법이 생활의 규범이므로 우리가 이에 따라 우리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규정해 주는 한, 곧 그것을 복종하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것임은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 즉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율법은 항상 의롭게 됨과 죄사함, 그리고 거룩함의 은총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또 율법은 이러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설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는 우리가 필요한 도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의 전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의 경주라고 보면(고전 9:24-26), 우리의 노력이 지금은 목표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달릴 길을 달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때 율법은 우리에게 권하는 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그 목표를 제시해 준다.³⁸ 즉 율법이 성화의 표준이 된다.

³⁶ 벌코프, p. 874.

³⁷ 본 논문 III장 C절에서 취급했다. Inst., II, 7, 6-10, 12-13; II, , 6, 2.

³⁸ Inst., II, 7, 13.

이와같이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의 완전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할 수 있는 영구불멸의 규범은 오직 '율법'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³⁹ 우리는 여기서 성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인 율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찾아 봐야 한다.

1.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완전한 지혜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 본성의 타락의 결과로 진리의 참된 빛은 계시를 체험하지 못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가지의 애매하고 의심스러운 어떤 '불완전한 원리들'만이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속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지혜가 담겨있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다."⁴⁰ 이렇게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에 정기와 힘을 주듯이 율법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패한 영혼의 상태는 사망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을 회복시키는 처방으로 율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율법의 글자 그 자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하나의 '도구' (instrument)로 사용했기 때문이다."⁴¹ 다시말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도와 안내를 받을 경우 결코 판 길로 갈 위험이 없는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으로 안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활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종교의 강령이요, 진리의 표준이요, 사건의 심판주요, 하늘로 인도하는 복극성과도 같다고 감히 말한다.

2. 율법은 항구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태초부터 인간의 양심과 피조물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존

³⁹ Inst., II, 7, 13.; II, 8, 7.

⁴⁰ Comm. on Psalms 19:7.

⁴¹ Ibid.

재에 대한 것을 예외없이 증거하셨던 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기록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친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즉 피조물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성(Deity)의 증거를 풍성하게 보여줘서 우매한 인류에게 교사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변명할 여지없이 하셨다. 이제는 자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보다 더 완전한 계시를 전달하고 있다.⁴² 비록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 용도에 있어서 종식되었지만 그 신성에 있어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의로서 계속 항구적인 것이다.⁴³ 특히 의식을 생각해 본다면 폐지된 것은 그 외형뿐이요 그 취지는 실제도 더 확증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무엇 하나 의식에 있어서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 뒤에 있던 진리가 계시되어 그림자(의식)을 더욱 보강하였다. 이 구체적인 사실에서 우리는 이 그림자가 헛되거나 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돌판에다 직접 새기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율법을 특별히 강조하였다(마 5-7장).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율법 사이에는 놀랍도록 일치함을 보여주며, 이 양자의 일치를 강조한다. 즉 새로운 계약이 오더라도 율법은 계속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⁴⁴ “율법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문화된 문자를 자기의 성령으로 소생시키고, 지금까지는 그림자로만 상징되었던 것을 마침내 사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가운데 성취하셨다.”⁴⁵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라도 폐지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결하고 독실한 생활의 법칙은 불변하며, 하나님의 공의(公義)는 그분께서 맨 처음에 율법에 포함시킨 그대로 항구불변하기 때문이다.

⁴² Comm. on Psalms 19:7.

⁴³ Inst., II, 7, 15-16.

⁴⁴ Comm. on Matthew 5:17.

⁴⁵ Ibid.

3. 율법은 권위적이고(신 5:1-5), 신성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출 19:10, 12; 출 31:18).

4. 율법은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실 어떤 기쁨도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참되고 확고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만 기쁨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양심의 참평화의 근본은 신앙이요, 이 신앙만이 값 없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이 그 분을 섬기는 데 공연한 수고를 하거나, 보상에 대한 소망(영생)이 없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데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활의 재판관과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 기쁨은 불쌍한 영혼들을 영원한 파멸로 유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유혹과 쾌락에 반대되는 것이다”고 했다.⁴⁶ 즉 죄를 범하는 데서 기쁨을 맛보는 자들은 스스로 무궁무진한 슬픔의 근원을 쌓아 놓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준수는 성도에게 참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5. 율법은 순결하여 성도들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 계명에서만 선과 악에 대한 확실한 구별을 찾을 수가 있다. 인간들이란 제아무리 날카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가르침의 빛으로 자신의 눈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눈이 멀고 항상 흑암속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다. 칼빈은 “하나님을 우리의 경영자와 안내자로서 삼고, 그분이 율법을 통하여 가르키는 길을 따르며 자신의 말씀에 의해 베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영화를 부지런히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⁴⁷

⁴⁶ Comm. on Psalms 19:8.

⁴⁷ Ibid.

6. 율법은 자신의 생활을 비교, 검토케 한다.

우리는 율법의 약속이 제시될 때마다 자신의 생활을 검토하고,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義)에 대한 완전한 규범에 비교해야 옳다.⁴⁸ 여기서 모두는 개인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없으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보상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배제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더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탈취하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돌아서게 하는 부패성을 두고 통곡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다시 피난처를 구하며 회개한다. 또 성령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은혜속에 머문다. 특히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도 부지불식간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들이 사단의 음모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더없이 치명적인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자기 자신과 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앞에 소환되었을 때 비록 그들의 양심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 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에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아무리 주의깊게 자신들을 살피는 사람이라도 비난받아 마땅한 죄악의 대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훨씬 더 명료하게 꿰뚫어 보신다.”⁴⁹ 그래서 율법은 자기 생활의 거울이 된다.

또 칼빈은 생활규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많은 자극이나 격려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충심으로 회개한 자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⁴⁸ Comm. on Psalms 19:12.

⁴⁹ Ibid.

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위를 위한 표준(pattern)을 성경구절에서 뽑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다.⁵⁰ 특히 칼빈은 “물론 인간생활을 가장 멋지고 가장 최선으로 정리해 주도록 해주는 것은 주님의 율법”이라고 했다.⁵¹ 한마디로 율법이 권면과 교훈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다. 율법은 복음의 빛에서 본 생활의 규범이다. 이러한 생활의 규범에 순종하는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다.⁵²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다(레 19:2; 벰전 1:15-16). 이를 위해서 율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중생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표시인 순결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살전 5:23; 빌 1:10).

이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를 자극해 주는 고삐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성령에 의해 거듭났기 때문에 죄악을 깨닫고 신음도 한다. 한편 육신의 반역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떨시와 불신앙의 원천인 하나님에 대한 망각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율법은 빛에 대해 가혹한 징계관이 아니라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목표를 완전함 가운데서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어 율법이 변함없이 ‘완전성결’(a much stricter moral purity)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 교훈을 무서워하거나 놀라 율법으로부터 피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⁵³

⁵⁰ Inst., III, 6, 1.

⁵¹ Inst., III, 7, 1. 그러나 칼빈은 이를 더욱더 요약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마 16:24)이라고 했다.

⁵² Inst., III, 6, 2.

⁵³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율법은 우리 영혼, 정신 및 의지의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육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영(靈) 외에는 아무것도 맞보지 않는 천사와 같은 순결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Inst., II, 8, 6.).

VI. 결 론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의롭게 되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되어 선행을 행하게 됨을 보았다. 이 과정속에서 칭의와 성화가 불가분의 관계며, 성화는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로서 필요한 단계였다. 또한 성화의 열매인 선행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물론 이러한 기초는 신앙이다. 칭의도 믿음으로 되며, 선행도 신앙적인 의를 바탕으로하여 의로서 용납되어 진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를 획득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나, 칭의가 성화의 열매인 선행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만을 만족하시지 않으신다. 영화롭게까지는 갈수 없으나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롬 8:30).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미미한 진보가 있더라도, 중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생활의 거룩함을 통해서 실증하게 된다. 이때 율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황에서 '생활의 규범'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화의 위치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단계이다. 그리고 율법의 위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요, 오직 영원하고 유일한 생활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나라로 가기 위한 '단계'요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A. 요약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성화와 율법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실천됨을 강조하려 했다. 즉 '신앙이 선행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본 논문의 서론에서 성화와 율법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사회의 도덕 부재현상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선행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물었다. 그리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화의 열매인 선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제시하고 증거하고자 했다. 여기서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없다는 '무율법주의'적 사고를 배격하고, 율법으로 의를 획득한다는 '율법주의'도 배격한다고 했다. 다만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활의 규범'으로서 필요함을 제시했다.

Ⅱ장, '칼빈에 있어서의 구원과 성화'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회개와 죄사함(행 5:31, 눅 24:47)으로서 이들이 신앙으로부터 나오고, 칭의와 성화의 근거와 이유라고 했다. 특히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구별되나 상호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즉 칭의는 구원에 있어서 법적 기초로서 새로운 자녀를 탄생시킨다. 이로서 우리는 또한 자유인의 신분을 갖는 것이다. 한편 성화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속에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와 우리의 마음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틀이 잡히도록 함으로서 성별되어지는 것이다. 상호 그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시는 '이중은총'으로 태양의 빛과 열의 관계처럼 상호보완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 없는 것과 같다(고전 1:1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하실 목적으로 뿐만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부르신 것이다(롬 8:30). 물론 칼빈에 의하면 성화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을 통해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이 성화는 이세상에서

는 완전하지 못하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계속적인 진보를 나타내게 된다.

Ⅲ장, '구원경륜에 있어서의 율법'에서는 율법을 넓은 의미로서 '구약종교의 형식'으로 보고 언약법입과 동시에 예배법임을 설명했다. 이러한 칼빈의 개념은 율법이 '복음의 예비단계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복음'이란 넓은 뜻이다. 또한 칼빈은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시민법)으로 구분하는데, 성도가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¹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상징으로서의 율법'에 대해 알아봤다.

그러나 칼빈은 바울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행위의 공적」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것을 대립시켜서 '율법적인 의'와 '복음적인 의'로 대립시킨 것을 잘한 일이라고 인정했다. 이때의 복음은 「믿음의 교훈」(딤후전 4:6)이요,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좁고 높은 뜻이다. 다만 칼빈은 율법을 이러한 좁은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복음적 의'와 '율법적인 의'를 대립적으로 사용했을 때 죄인인 인간은 율법으로 의를 획득할 수 없고, 절망한 나머지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다. 이때 '율법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죄사함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죄의 인식, 악의 견제라는 부정적인 기능외에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생활규범'으로서의 제3기능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제3기능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이다.

Ⅳ장은 성화의 열매요, 율법에 대해 새롭게 순종하는 선행에 대해 다뤘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정황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아 인도함을 받는다. 그의 성품도 성화

¹ Inst., II, 7, 12; Comm. on Romans 2:13; Matthew 5:21.

되어 그리스도를 재현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믿음의 증거인 선행을 실천한다. 물론 성화의 결과다. 즉 선행이 신앙으로부터 나와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이 선행은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듯이, '칭의는 선행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고해도 선행이 구원의 공적은 아니다. 오직 신앙적인 의를 기초로하여 선행인 것이다. 그러나 이때 선행이 비록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까지도 의롭다고 용납하신다. 칼빈은 이를 '행위적인 의'(works righteousness)라고 했다. 이 선행의 상급은 영생인데, 믿음의 결국도 영생인 것이다(벧전 1:9). 왜냐하면 믿음은 칭의의 '매개적인 원인'(instrumental cause)이요 선행은 '결과적인 원인'(final cause)이다. 그러므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란 선행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히 증거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인간구원'에 대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구원의 과정을 부언 설명해보자.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부름받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죄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동시에 성화되는데, 성결의 영은 인간의 죄성(罪性: common nature)을 없애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회복도록 하신다. 즉 우리의 삶속에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마음의 틀이 잡히게 하여 성별시킨다. 그리하여 약속된 열매를 명상하고 소망을 갖고 록 한다. 이때 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중생한 이 자녀는 의롭게 되어 즉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나, 일생동안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 정진한다. 또한 이를 생활의 거룩함으로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선행이다. 이 선행은 믿음의 증거요 감사의 표시며 성화의 열매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하라」(레 19:2; 벧전 1:15-16)는 하나님의 명령을 동기로 하여

점점 성화되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늘나라(Kingdom of God)로 간다. 다만 여기서 성령은 완전한 실행자이나 완성의 능력을 인간에게 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성화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단계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선행이 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선행을 결여한 것이 아니므로 성화의 열매인 선행없이 칭의를 말할 수 없다. 칭의와 성화가 불가분의 관계임은 성경적 증언이다(롬 1:30).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의 열매요 하나님의 명령인 선행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선행과 순종으로 예배드려야 할 이유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를 확신해야 한다.

또 한가지 문제가 남았는데 V장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문제이다. 물론 III장, 율법의 제3용도에서 언급되었던 것이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이러한 기능에 적용된다. 이는 율법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으로써 더 이상 저주와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흔들림이 없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생활규범으로 제시하여 권면하고 교훈한다. 율법은 완전한 의로서 신자가 순종할 의(義)다. '영원하고 유일한 규범'인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신성하고 순결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B. 제 언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에 있어서 율법과 성화의 위치'를 연구하면서 나타난 특징과 제언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1. 우리가 칼빈을 연구할 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관개념' 혹은 '이중목적' '이중인식'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상관

개념이란 두 개념이 서로 긴밀히 상관되어 있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된 것이 아니고 서로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하나를 이해하려면 다른 하나를 등장시켜야 하는 개념이다. 앞서 우리가 다룬 '죄사함과 회개'가 그렇고, 칭의와 성화, 신앙적인 의와 행위적인 의, 율법과 복음이 다 그러한 관계이다.

또한 칼빈은 성화와 율법의 위치를 다름에 있어서도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와 죄된 현상, 또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사정을 동시에 앞에 놓고 그 어느 하나만 의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혼란시켰다. 그러므로 칼빈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함이 불확실함으로 인해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2. 칼빈이 생활규범으로서 율법의 필요성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함으로 인해 율법주의자란 오해를 받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칼빈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고 극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다시 속박해오는 성격의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만약 우리가 복음으로 '약속의 완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² 율법은 한편에서는 저주를 일으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저주의 효력이 없다. 즉 율법 자체는 신자에게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저주를 선언하나, 「성령」이 신자의 마음에 활동하실 때 그 저주의 효력은 없어지고, 율법은 선행에의 자극을 일으키기만 하는 것이다. 이때 율법은 생활규범으로서 교훈과 권면이 된다. 이렇게 칼빈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별을 성령의 권위에 돌리고 있다. 단지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의 율법을 보여준다. 또 율법의 영성에 반항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죽은 글자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³ 또 칼빈은 율법은 살리기를 목적하는 것인데 만일 죽이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했다. 즉 율법의 죽이는 직능은 우

² Inst., II, 9, 3.

³ Inst., III, 7, 7.

연적(accidental)인 것이고, 사람의 부패로부터 오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다.⁴ 율법이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성결의 모범에 준하여 형성하는 '의의 완성'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율법의 적극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이러한 경향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받드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칼빈은 오히려 기독교강요 3권 19장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상을 잘못 해석한 데 있다고 본다. 결국 칼빈에 있어서 율법은 창조의 원상태에서 지시되고, 화해의 은총에서 조명되며, 성화의 생활에서 해방과 해결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인에게 특수한 정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도 필요하다. 칼빈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별해야 한다"⁵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특수한 정황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성화된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종말론적으로 지금과 미래에 거듭 새로이 활동할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성령은 한 그리스도와 한 하나님의 영이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성령이다.⁶ 즉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의 신분으로서의 특수한 정황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인, 비기독교인, 비양심인과

⁴ Comm. on Geneis 2 : 16; Comm. on Romans 7 : 10-11.

⁵ Inst., II, 9, 3.

⁶ Inst., III, 3, 14. 성령은 결코 살인, 간음, 술취함, 교만, 싸움, 탐욕, 기만 따위의 보호자가 아니고, 사랑과 근신, 절제와 화평, 온전과 진실의 창시자다. 또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정과 부정을 올바르게 분별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방종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분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절도와 중용을 지키도록 하는 분이다.

구별되는 정황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어야 할 본성인 것이다.⁷

즉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받은 신자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있는 것이다. 즉 한때는 어둠의 아들이었으나 지금은 빛의 아들이다(엡 5:8). 이러한 성별의식을 스스로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

4. 성화교리의 중요성은 칭의교리와 함께 계속 강조되어야 하고 옳게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칼빈의 성화의 교리는 이론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 즉 칼빈은 칭의, 성화의 교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일상생활로 이끌어 가 확론한다. 즉 사고의 선을 교리적인 영역에서 윤리적이며 우리의 삶 깊숙이로 넘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것을 일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눅 9:23)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요구하였다.⁸ 즉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모든 악의 뿌리를 찍어 버려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모든 인내와 용화에 대하여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은 이것 뿐만아니라 경건과 성결에 관한 일체의 다른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을 아버지에게 내어주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요(빌 2:28),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투입했던 것이다(요 4:34; 눅 2:49).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과 영혼을 다 경주하여 구한 것이요(요 8:50, 7:16-18),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요(요 10:15, 15:13), 원수를 위해서도 선을 행하고 또 기도하신 것

⁷ Inst., III, 3, 8.

⁸ 칼빈은 이를 III. 6-10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다(눅 6:27, 35, 23:34). 그래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한다.⁹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담보는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재현하는 조건에서 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가운데 하나님께 화해되었고,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우리앞에 세워 주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늘나라의 불멸과 하나님의 영광의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벧전 5:4), 그것들을 주의 날이 오기까지 순결하고 썩지 않도록 열심히 보존해야 할 것이다(살전 5:23; 빌 1:10). 그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또한 이땅에서의 생활의 거룩함을 나타냄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칼빈은 신앙을 칭의의 원인으로서는 말하나 결코 율법의 실천 즉 하나님이 명령한 선행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구별될 뿐이라 했다. 한마디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나 「칭의(justification by faith)가 선행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의인의 교리에 그치고 만다면, 죄인이며 의인으로서 절망만 보인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은 겨우 의롭게 하는데만 행동하는 값싼 것인가 물을 때, 그리고 오늘과 같은 악한 인간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해결책은 없는가 물을 때 우리는 성화의 교리를 내세워야 한다. 이것이 목회자와 신학자의 책임이다.

이 성화의 교리아말로 기독교 원리에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확립해 주는 가장 신성한 기초다. 또한 성화론을 제외한 윤리나 사회복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근거를 상실한다. 성화의 복음이야말로 오늘의 교회생활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순종하

⁹ Hepe, p. 576.

¹⁰ Berkower, Faith and Sanctification, pp. 135-59.

여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삶의 단계를 가르치고 확신시키는 것은 이 시대의 필수적인 요청이라고 본다.

끝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의인(the righteous)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왜 의인인가' 물으면 그것이 '생활의 성결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를 향해 달릴 뿐이다. 내가 달리고 가면 주님이 목표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다만 나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성별되고 삶의 참된 순결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마음에 틀이 잡히는 성화의 길로 전진할 뿐이다. 또 그것을 알고 기도한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 그의 의를 찾아가는 나는, 영원한 규범이요 안내자로서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고 인도함을 받으며 갈 것이다. 그것은 기쁨이지 짐이 될 수 없다. 이때도 나는 나 자신과 내 행위까지 의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뵈 때, 더욱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뵈기 원하고, 이땅에서 율법에 순종하여 선행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Soli Deo gloria!

Bibliography

1. 칼빈의 저서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 and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New York : Westminster press, 1960.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 The New Testament Commentaries on Matthew, Mark, Luke, vol. III.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and Translated by A. W. Morriso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and Translated by W. J. G. McDonald.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 The New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and Translated by R. Mackenzi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and Translated by John W. Fraser.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 _____ . The New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ians and Colossians.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and Translated by T. H. L. Parker.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 _____ . The Old Testament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I. Translated and Collated by the Rev. Janes Aderso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 _____ . The Old Testament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and the Lamentation, vol. IV. by the Rev. John Owe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 _____ . Commentaries on and Letters. Edited by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78.
- _____ . Theological Treatise, Edited by J. K. Reid. London : SCM Press LTD, 1974.
- _____ .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by Benjamin W. Farl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0.
- _____ . John Calvin : His Influnece in the Western World. Edited by W. Standford Reid.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982.
- _____ . The Commentary. Translated and edited by The Rev. John Owe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n.d.
- 존 칼빈. 「기독교강요」 김문제 역. 서울 : 세종문화사, 1977.
- _____ .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_____ . 「칼빈의 신앙과 삶」 권태경역. 서울 : 지혜원, 1988.

2. 2차 참고 자료

- Anderson, Ray. Historical Transcendence and the Reality of God.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 Battles, Ford Lewis.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0.
- Berkower, G.C. Faith and Sanctification.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 _____. Sin.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 _____. Faith and Justification.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 Jacobs, Paul. Prädestination und Verantwortlichkeit bei Calvin. Dar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8.
- Heppe, Heinrich. Reformed Dogmatics. Revised and Edited by Ernst Bitzer. London : George Allen & Union LTD, n.d.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 MaChen, J. Gresham. Christianity and Liberatio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McKim, Donald K.,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 1984.
- McNei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er of Calvin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ated by Harold Kinght.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0.

- Ridderbos, Herman. Paul :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lated by John Richard Dewitt.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 Ursinus, Zacharias. The Co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Translated by G.W. Williard. 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852.
-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Cleveland :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0.
- Van Till, Cornelius. The Case for Calvinism. 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9.
- Wendel, Francois. Calvin :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tated by Philip Mairet.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3.
- 도날드 K. 맥킴의. 「칼빈에 관한 신학 논문」 한국칼빈주의학회편역.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8.
-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상)」 권수경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_____ . 「조직신학(하)」 권수경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_____ . 「신학개론」 서울 : 세종문화사, 1976.
- 마틴 루터. 「소교리문답」 지원용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1.
 _____ . “갈라디아서의 논점” 「Luther's Works 26 : 4-12」 김기홍역.
 _____ . “슈말칼트신조” 「신앙고백서」 지원용편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8.
- 문희석외 감수. 「성서백과대사전」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1.
- 빌헬름 니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
- 벤자민 B. 윌필드. 「칼빈·루터·어거스틴」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8.

- 서철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서울 : 도서출판 엠마오, 1991.
- 아더 C. 구스탕스. 「칼빈의 교리신학」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8.
- 요셉 리차드. 「칼빈의 영성」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8.
- 요셉 하트니만 편저. 「칼빈의 조직신학 해설」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8.
- 윌리스톤 윌커. 「기독교회사」 류형기역. 서울 :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4.
- 칼 바르트. 「은총의 선택 및 복음과 율법」 서울 : 한신대학 출판부, 1980.
- 프랑시스 웬델. 「칼빈신학서론」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8.
- 한철하. 「아세아복음화신학」 서울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0.
- 한철하 감수. 「갈라디아서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한철하 감수. 「고린도전서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한철하 감수. 「누가복음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한철하 감수. 「로마서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한철하 감수. 「마태복음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한철하 감수. 「사도행전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한철하 감수. 「시편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한철하 감수. 「에베소서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한철하 감수. 「예레미야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한철하 감수. 「창세기주석」 「칼빈성경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 T. H. 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역. 서울 : 생명의말씀사, 1986.

ABSTRACT

The Position of the Sanctification and Law in John Calvin

Ae-Hoe Kwon

Th. M.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Adam's sin of disobedience entailed loss of man's original endowments and the ruin of the human race so that fallen man became liable to God's wrath and judgement. But fallen man can be justified freely by God's grace and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at the same time. In this process,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inseparably related, and sanctification is a necessary step toward glorification in the heavenly Kingdom. Also, good works are the fruits of sanctification, and these a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law of God and for God's glory. Naturally, the foundation of these benefits are faith. Justification is by faith, and good works which are founded on justification are also

by faith and are accepted as works righteousness (*operum justitia*).

Therefore, we insist on neither a faith devoid of good works nor a justification that stands without good works. This is of utmost importance for though faith and good works must exist together, we still base justification on faith, not on works. This means that the law functions as a rule of life, and not as a means of salvation.

I am convinced of justification by faith. I would like to identify clearly the position of sanctification and law in John Calvin and point out that the entire Christian life ought to be a consistent practice of godliness, for we have been called to sanctification (1 Thess. 4:7). In a word, the Christian life should include the practice of good works.

CHAPTER I

In the Introduction, I point out the importance of sanctification and law. I hypothesize that the phenomenon of moral break-down today originates from the emphasis on free grace or *sola fide* devoid of good works in church. So, I would like to suggest and prove that Justification by faith and good works as the fruits of sanctification are inseparably related to each other.

I oppose both the antinomianistic way of thinking which maintains that the law is unnecessary for Christians because Jesus Christ has fulfilled all the law and the nomianistic way of thinking in which Christians acquire righteousness by the works of the law. I also suggest that

Christian renewal involves keeping in a law as the rule of life.

CHAPTER II

In Chapter II, I talk about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in John Calvin. The sum of the gospel is held to consist in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Acts 5 : 31; Luke 24 : 47) which come from one's faith and is the basis and reason for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 emphasize that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distinct, but inseparably related to each other, namely, justification is the legal foundation for salvation and produces new sons of God. And, we have the status of freemen. Thus, sanctification makes internal changes in our lives through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who consecrates us to the Lord so that our hearts are inclined to obey the law. There are distinctions betwee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but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a double grace from God received at the same time. These are interrelated structurally such as the relation of light and heat in the Sun. It means "Jesus Christ is not divided" (1 Cor 1 : 3). And God also called those "whom he justified, them he also glorified" (Rom 8 : 30). Surely, Calvin insists, sanctification is not the way to the Heavenly Kingdom, but it is the necessary step leading to the glory of the Heavenly Kingdom by means of good works.

Furthermore, entire sanctification is not accomplished in this world. Throughout one's life, man is progressively sanctified in order to restore God's image by the Holy Spirit.

CHAPTER III

In Chapter III, I talk about law in the dispensation of salvation. In the broad meaning, law as a form of religion can be expressed as covenant law and as worship law. This is Calvin's identification; law is the preparation step for the gospel and the incomplete status of gospel. In addition, I researched about the law as the perfect will of God that Christians obey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about law as the shadow and figure of Christ.

But Calvin accepts the comparison of the righteousness of the works of law and the righteousness of Gospel, by contrasting the merits of works and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when Paul refuted the Pharisees' misconception.

This Gospel is the word of faith and good teaching (1 Tim 4 : 6), and is the declaration of the grace in Jesus Christ. But, Calvin said that the law has a broader meaning than merely being a contrast to the Gospel. When we talk about the righteousness of law in opposition to righteousness of the gospel, fallen man can not obtain righteousness by works of the law and must turn to Jesus to obtain God's righteousness and deliverance from man's desperate situation. At this time, the law is the schoolmaster to bring men to christ.

Calvin said that law has three function, namely, to produce knowledge of sin, to restrain evil, and to provide a rule for life. This third function is the principal use that points out the goal toward which

we are to strive throughout life. The third function is an active and positive one.

CHAPTER IV

In Chapter IV, I talk about good works which are the fruits of sanctification and a new obedience to the law. Christians are placed in a different position, compared to non-Christians. Christians are no longer sinners, and God's son and freed from the law. Christians are justified by Jesus Christ and led by the Holy Spirit. Their common nature is also sanctified and imitates Christ. He practiced good works as the evidence of his thankfulness for God's grace. Of course, good works are the result of sanctification. Good works are performed for the glory of God. I conclude, therefore, that good works are founded on justification by faith and are not merits for salvation.

At this time, even though good works are incomplete, God who justifies sinners as righteous accepts our imperfect works. Calvin called this "works righteousness" (*operum justitia*). The reward of good works is eternal life, and also the goal of our faith is the salvation of our souls (1 Peter 1 : 9), namely eternal life. Faith is the instrumental cause, and good works are the final cause. Therefore, I am assured that justification is not complete made without good works, but yet not by works. So, justification by faith is very important; at the same time, sanctification is the necessary step leading to the Kingdom of God.

CHAPTER V

In the Chapter V, I talk about the law as the rule of life. It is very a important issue for Christian. Of course, in the third chapter, I talked about the third function of the law. Regenerated Christians are governed by this function of the law. This is the active and positive function, not the function of the law which curses and condemns people. This function of the law is the everlasting and unchanging rule of living, a perfect righteousness which enables man to obey God because the law is perfect, everlasting, pure and holy.

CHAPTER VI

In conclusion, I talk about the position of law and sanctification. First, the position of sanctification is a necessary step leading to the Kingdom of God by means of good works and the law is an everalsting and sole rule of life. A regenerated Christian is free from the curse and condemnation of the law. Therefore, these are the steps and pattern to the Kingdom of God as holy man imitates the image of God.

I suggest that we must emphasize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and ought to teach it rightly. It is important that Calvin's doctrine of the sanctification is not taught as an intellectual theory, but we must prove the living God in our lives through practicing good works.

Therefore, Calvin requires the Christian lives as follows.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rk 16 :

24 ; Luke 9 : 23). Sanctification is imitating Jesus Christ. So, we have been adopted as sons by the Lord with one condition ; that our life express Christ, the bond of adoption, Christ, through whom we come into favor with God, has been set before us an example, whose pattern we ought to express in our lives, since both our souls and bodies are destined for heavenly incorruption and an unfading crown (1 Peter 5 : 4).

Considering this, Calvin said that faith is the cause of justification. But he stresses that regenerated Christian obey the law voluntarily, as good works performed according to law are commanded by God.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distinguished, but have an inseparable relationship to each other. In a word, justification is not devoid of good works.

Therefore, if we only emphasize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we can not avoid failing to make sinners to become righteous in their lives. When we ask God's way to change evil men, we should emphasize strongly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stor and the theologian.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Christianity and is the most necessary one to establish our faith life. When sanctification is neglected, Christian ethics and the social gospel are lost from the full biblical doctrine of salvation. Gospel of sanctification is the motive to vitalize the church's life toda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teach and to convince Christians to obey the law and to practice good works voluntarily and with pleasure.